

십자군 전쟁에 대한 재고 - 제1차 십자군전쟁의 원인 중심으로 -

강상우 사회복지 CoramDeo 목사

논문 초록

본 연구는 제1차 십자군 전쟁의 원인에 대한 재고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십자군 전쟁의 원인에 대해 재고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1) 새로운 관점은 새로운 해석을 낳기 마련이다[新視覺⇒新資料選擇⇒新解釋]. 서유럽 중심의 십자군 전쟁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비잔틴[동로마]제국과 이슬람의 시각에서의 십자군 전쟁에 대한 이해가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역사의 전개 과정은 명확히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드러나는 인과관계(因果關係)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諸要因]들 간의 상관관계(相關關係)에 의해서 얽히고설켜서 나타난 결과물에 가깝기 때문에 “정확히 이것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식의 하나의 원인에 의한 인과(因果)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물론 어떤 요인이 다른 요인들과 비교(比較)해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식의 논리와 주장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십자군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脫近代主義와 微視史的의接近擡頭]. 그러므로 (3) 십자군 전쟁의 경우도 어느 하나의 특정 원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요인에 의한 복합적 결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거칠게 범주화(categorization)하여 말하자면, (a) 비잔틴 황제의 정치적인 계산[導火線役割](개인적으로 이 원인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원인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과정과 결과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결과주의가 아닌 원인주의라고 할까! 물론 이후의 십자군전쟁은 교황에게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교황들이 그러한 결정을 한 것이 전적으로 종교만의 이유가 아닌 것 또한 사실이다.)과 거기에 (b) 로마 교황의 당시 상황에서의 종교적인 계산에, (c) 당시 레반트 지역에서의 이슬람의 세력 확장, 그리고 (d)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그 당시 사회에 강하게 영향을 주었던 밀레니엄 사상과 더불어 십자군 전쟁에 참가한 각 개인들의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십자군 전쟁의 원인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는 오늘날 십자군 전쟁의 연장으로 이해되고 있는—사실과는 거리가 먼—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대립관계[宗教間衝突]의 역사 이해에 대해서 재고의 여지[反省可能性]를 남긴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립의 관계에서처럼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한다거나, 단지 양(兩) 종교 간의 대립[宗教分爭·衝突]에서만 그 원인을 찾게 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일 지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양 종교 간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주제어: 십자군전쟁. 로마 교황. 비잔틴 황제. 이슬람.

I 머리말

1 ‘괄호()치기’가 때론 필요

역사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역사가 변한다는 사실이다(Goldstone, 2011: 9).

과거와 다른 이야기들이 차고 넘친다. “과거에는 이것이었는데, 오늘날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식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경우에는 ‘이것’과 비슷한 ‘비슷꼬름한 이것1-or-A’도 아닌, 이것과 전혀 다른 ‘저것∞-or-Ω’이나 ‘그것Z-or-n’이라고 하니 참으로 심히 헷갈릴 수밖에 없다. 포스트모던이라는 단어가 얘기해주는 것처럼 전적인 모던의 붕괴일까?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대담론의 해체일까? 아니면 그저 과거에 음모(陰謀) 가운데에서 그것도 모르고 그저 속고만 살아온 결과일까? 정보의 비대칭의 결과이기 때문일까? 무엇보다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에서 찾고 싶다. 태생적인 대가리[理解]의 한계에서 오는, 언어적 한계로 인한 자료에 대한 접근의 한계 말이다. 일종의 ‘정보 격차’(information divide)에서 오는.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에 괄호 치기가 항상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말 그대로 선급한 결론보다는, 에포케(epoche, εποχη)가 필요한 것이다. “잠시, ‘쫓!’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다음은 과거에 쓴 글에서 사용한 내용이다](강상우, 2018) 과거에 KBS(내 기억에 아마도?)에서 허황옥(許皇后)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프로그램에 나온 전문가에 의하면 우리나라 김해 김 씨의 조상인 김수로왕의 배우자인 허황옥이 인도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일연의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TV에 출연한 그 전문가는 쌍(雙)물고기 문양이나 다른 여러 증거들을 끄집어 들어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갔었다. 그것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이미지 사진]를 화면으로 제시하면서 말이다. 당시 나는 TV 그것도 KBS라는 국영방송에서 이러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단일민족국가에서 다문화사회로 가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했었다. 그 내용의 진위여부와는 관계없이. 아니 진위여부를 알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사실 아니었고.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가 일본 황실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네,¹⁾ 또는 우리나라에 귀화(歸化)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성(姓)을 임금님으로부터 하사(下賜)받아 그들의 시조(始祖)가 되었다 네, 등등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기에[중학교 시절 역사 선생님께서 처음 들었다], 허황후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들 중의 하나 정도로만 단순하게 생각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과거

1)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책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일본 학자들이 알려준 바에 따르면, 가장 초기의 왕릉들을 최근에 발굴했더니 그 왕의 가문이 원래 한국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강력한 시사점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예구버니, 한국인이러니! 일본 정부는 이 사적들에 대한 후속 연구를 막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써왔다.”(Anderson, 2018: 152, 6장 29번 각주).

(2017.05.11)에 도서관에서 빌려서 본 책에는 그것이 전혀 사실과는 다르다는 주장이 실려 있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이광수 교수²⁾의 책, 『인도에서 온 허왕후, 그 만들어진 신화』에 의하면 허왕후(허황옥) 이야기는 단지 설화에 불과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거기에 얽히고설키면서 오늘날의 허왕후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김병모라는 역사학자가 자신의 학력(서울대, 옥스퍼드대학 박사 출신)과 한양대 문화인류학 교수라는 직함 등을 등에 업고 언론을 활용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비역사적 전설을 실체가 있는 역사로 만들어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한 이광수 교수의 주장을 직접 인용해 보겠다.

허왕후 신화는 통일신라시대에 수로왕 신화의 일부로서 뼈대가 만들어진 이후 <가락국기> 안에 수록되고 여러 이야기들이 덧붙여졌다. 『삼국유사』가 편찬되는 고려 문종 대에 이르러서는 신화의 구조를 갖추었다. 그 후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허왕후는 실제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 당시[조선시대] 성리학적 세계관 위에서 가문을 중심으로 정치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신도들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궁리를 하던 불교 사원 사람들이 그 중심에 섰다. 나말여초 이야기를 창작하던 중 만들어진 ‘아유타국 공국 허황옥’은 이런 과정을 거치며 능[陵]을 갖추고 시호[諡號]를 받은 실제의 인물로 날조되기에 이른다. 그렇지만 그러한 움직임은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졌을 뿐 범국민적으로 일어난 현상은 아니었다. 이 창작 설화가 실제의 역사로 자리 잡은 것은 한 유명 교수의 적극적인 언론 활용 덕분이었다. 발단은 1977년에 이종기라는 한 아동문학가가 쓴 작은 탐사문이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1980년대부터 줄기차게 쏟아내는 김병모 교수의 사이비 역사학 때문이었다. 급기야 허왕후 신화는 최근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인도의 ‘위대한 힌두 민족주의’의 자양분이 되기에 이르렀다(이광수, 2017: 175-176).

최근에 인터넷 기사를 통해 접한 것이다. 정몽주(鄭夢周) 선죽교 사망설이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을 역사학자 김인호 교수가 자신의 논문을 통해 제기했다고 한다. 논문의 제목처럼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정몽주 선죽교 이야기는 신화화의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³⁾ 그런가 하면 제임스 Q. 워트먼(James Q. Whitman) 교수는 자신의 책, 『히틀러의 모델, 미국: 미국의 인종법은 어떻게 나치에 영향을 미쳤는가』

2) 참고로 이광수 교수의 책을 읽을 때마다 어안이 병병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거리가 먼 얘기를 자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그런 느낌이 들었다. “아쇼카 또한 마찬가지다. 그는 최초의 통일 제국을 형성한 후 강력한 중앙집권정부를 세우기 위해 당시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인 브라만을 억제한 불교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그는 브라만 세력을 억압할 목적에서 그들의 경제력 원천인 재산 급지령을 내리고, 백성들에게 브라만뿐만 아니라 불교와 자이나교 그리고 그 외의 여러 다른 종교 교단에게도 물질적 후원을 해야 한다는 칙령을 내리고 스스로 그렇게 했던 군주다. 그는 반(反)브라만차원에서 비(非)브라만교를 지지한 군주였을 뿐 불교도들이 흔히 말하는 불교를 숭상한 호법(護法) 군주는 아니었다”(이광수, 2017: 74). 불교에서 아쇼카 왕을 동물보호의 대명사로 소개하고 있지 않은가? “실제 역사에서 인도가 한 번도 불교의 나라가 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교가 인도에서 출발했고 인도를 불교의 역사 인식을 통해 이해했기 때문에 인도를 불교의 나라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인도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은 조선 중기 이후 최근까지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이광수, 2017: 84); “붓다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취한 음식이 돼지고기였다는 것은 기록에 나와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후대의 불교도가 별의별 논리를 들어 붓다의 마지막 음식이 돼지고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붓다를 자신들이 하는 채식주의자의 교조로 삼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붓다의 중도에 대한 모독일 뿐이다.”(이광수, 2013: 172); 이광수 (2013). 『슬픈 붓다』. 파주: 21세기북스.; 김경학·이광수 (2006). 『암소와 캔지스』. 부산: 산지니.; Jha, D. N. (2002). *The Myth of the Holy Cow*. Verso. 이광수 역 (2004). 『인도 민족주의의 역사 만들기: 성스러운 암소 신화』. 서울: 푸른역사.

3) 김도균, “정몽주 선죽교 사망설은 허구.. 학자 주장”. <SBS> (2019.04.14); 김인호 (2019). “정몽주의 신화화와 역사소비”. <역사와현실>. 111. 17-44.

(Hitler's American Model: The United States and the making of Nazi Race Law)라는 제목에서처럼 잔혹한 홀로코스트(Holocaust)로 대변되는 독일 나치 제3제국(the Third Reich)의 인종법(人種法)에 크게 영향을 준 나라가 다른 아닌 바로 미국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Whitman, 2018) 당시 독일은 미국의 인종법을 배우기 위해서 직접 미국으로 전문 연구단을 챙겨서 떠나기까지 했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⁴⁾ 이 또한 처음 접할 때에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떠나서 내 자신을 매우 당황스럽게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과거에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다.⁵⁾

2 연구목적과 문제 그리고 범위

과거 몇 년부터,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는 안티[Anti基督]이라는 단체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9·11사태 이후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을 필두로 한 신(新)무신론자(New Atheists)의 비난에 의해서 그러한 주장은 강화되었다. 이 나라도 그러한 세계적인 분위기의 예외는 아니었다. 기독교의 과거의 흑(黑)역사라는 이름으로 안티들에 의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세의 십자군 전쟁(the Crusade)이다.^{6)·7)} “신이 원하신다”(God Wills It!, Deus de Volt!)라는 구호와 함께 시작된 전쟁, 더 나아가 예루살렘 함락과 그로 인한 잔혹한 대량학살이 그것도 다른 아닌

4) 다음도 참조하라. “1927년, 미국은 이민제한법을 발효했고(이 법은 몇 년 후 나치 때문에 발생한 난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게 되었다) 연방대법원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비자발적 단종 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단종법 합헌 결정을 내렸다.(단종법은 1970년대까지 미국의 몇몇 주에서 시행됐다) 단종법의 초안을 짚은 사람은 미국의 저명한 우생학자이자 유전학자인 해리 로플린(Harry Laughlin)이다. 나치가 1935년 뉘른베르크법은 제정했을 때, 그들을 로플린으로부터 받은 영감에 정의를 표했고, 그에게 하이델베르크대학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그렇지만 나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충분히 당황스러운 일여서 로플린은 뉴욕 주에 독일 대사관에서 학위 수여식을 해야 했다)”(Marks, 2017: 92-93).

5) 차용구 교수의 다음의 책(2004)은 영화와 역사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 차용구 교수는 스페인의 역사학자인 라몬 메넨데스 피달(Ramon Menendez Pidal)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스파냐의 민족 영웅 로드리고 디아스 데 비바르(엘 시드)에 대해서 역사와 전혀 다른 인물로 재탄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엘 시드는 영웅이 아니라 ‘용병’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것이다. “이베리아 반도에 온 프랑스 기사들은 신앙을 위해 싸우는 십자군이었을 몰라도, 당시 에스파냐 귀족들의 처지는 그렇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슬람 왕국은 때로는 적이 되었다가 친구도 되는 이웃이었다. 에스파냐 귀족들은 기독교 국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 아무 거리낌 없이 이슬람 세력에게 원조를 요청했다. 엘 시드 역시 주군인 알폰소 6세와 사이가 좋은 때에는 그를 위해 싸웠으나, 사이가 틀어지면 이슬람의 제후들을 섬겼다. 결국 엘 시드는 자신의 이익과 명성을 위해서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를 넘나든 직업 용병이었다. (...) 1081년 레온 왕국 출신 귀족들과의 권력 싸움에서 밀려난 엘 시드는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사라고사의 이슬람 군주 알 무타미드(영화 초반부에 로드리고에게 엘 시드라는 칭호를 준 인물)을 섬기며 보낸다. 알폰소 왕의 재신임을 얻어 돌아갈 때까지 5년 동안 이슬람 지역에서 용병으로 활약하며 명성과 부를 축적한 것이다. 특히 알 무타미드의 명령을 받고 수행한 전투에서 엘 시드는 바로셀로나 백작과 로다의 주교를 포로로 잡기도 했으며, 기독교 왕국인 아라곤 왕과 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물론 이 같은 ‘비기독교적’ 활약상은 영화에서 교묘하게 생략되었다.(차용구, 2004: 179-185).

6) 십자군 전쟁에 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로는 십자군 전쟁의 경우 1차와 4차를 중심으로 한 연구, 십자군을 바라보는 작가와 무슬림과 서구의 시각에 관한 연구, 미용과 복식, 의술, 그리고 르네상스에 끼친 영향 등에 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riss4u 2019.04.15).

7) 다음을 참조하라. “실제로 겨우 백 년 전까지만 해도 이슬람 세계는 십자군에 대해 알지도 못했다. 십자군을 가리키는 말, ‘하르브 알 살리브’(Harb al-Salib)는 19세기 중반에 비로소 생겼으며, 아랍에서 처음으로 십자군에 관한 역사가 쓰인 것은 1899년의 일이었다.”(Madden, 2010: 357) 그리고 “‘십자군’(crusade)은 현대에 들어와 생긴 용어이다. ‘십자가의 표식을 단 자들’을 뜻하는 *crucesignati*에서 비롯된 말로, *crucesignati*는 12세기 이후로 십자군을 가리키는 데에 사용되던 별명이었다.”(Madden, 2010: 25); “‘성지로 가는 길’에 대한 우르바노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 십자군 원정의 뿌리는 순례의 개념에 있었다. 십자군 전쟁은 처음에는 ‘페레그리나치오’(peregrination, 순례)로 다음에는 ‘오푸스 도미니’(opus Domini, 야훼의 일)로, 그 다음에는 ‘프라엘리움 데이’(praedium Dei, 하느님의 전투)로, 그리고 ‘벨라 도미니’(bella Domini, 야훼의 전쟁)으로 일컬어졌다.[Mastnak, 2001: 57]”(Carroll, 2014: 565-566, 5장 53번 주); “실제로, 그들이 ‘크로와세리’(croiserie) 혹은 ‘크루세시 나티’(crucesignati, [십자가 표식을 단 자들]라 불리기 수십 년 전까지 십자군은 십자가의 순례자라는 뜻의 ‘페레그린’(peregrine)으로 불렸다.[Mastnak, 2001: 46]”(Carroll, 2014: 235). Mastnak, Tomaz (2001); *Crusading Peace: Christendom, the Muslim World, and Western Political Ord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신의 이름으로(in the name of God)로 성지(聖地)인 예루살렘에서 행해졌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최근에 십자군 전쟁과 관련된 새로운 번역서를 읽게 되었다.⁸⁾ 2012년에 출판되었지만 2018년이 되어서야 번역된 책이었다. 피터 프랭코판(Peter Frankopan)이 쓴, 『동방의 부름: 십자군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The First Crusade: The Call From The East)이었다. 피터 프랭코판은 자신의 책을 통해서 주장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1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은 기존에 알려진 대로 교황 우르반 2세(Urban II)가 아니라 그 당시 동로마제국[비잔틴제국] 황제이었던 알렉시우스 콤네노스(Alexius Comnenus, Αλεξιος Κομνηνος, Alexios Komnenos)라는 것이었다.(이는 중요한 일차적인 책임이 동로마황제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는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십자군 전쟁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워졌다는 말 또한 아닐 것이다. 주디스 헤린 [Judith Herrin]도 이와 유사한 뉘앙스[nuance]를 풍기는 “24. 십자군의 지렛대”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Herrin, 2010: 491-508 참조]. 그와 관련해서 피터 프랭코판은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하고 있었다.

이 황제[알렉시우스 콤네노스]는 중세의 역사와 발전에서 획기적인 순간으로 떠오르는 제 1차 십자군을 촉발시킨 장본인이었다. 그러나 노르만인을 격퇴하고, 페체네그족을 완전히 패배시킴으로써, 비잔티움제국의 운명은 이제 활짝 피어나는 듯했다. 그렇다면 왜 비잔티움은 1095년에 이르러 투르크족을 공격하는데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가?(Frankopan, 2018: 74).⁹⁾

프랭코판이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서유럽 중심의 역사학자들과는 다른[기존의 역사가로부터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자료를 비중 있게 참고했기 때문이다. 서구 전통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료와 다른 관점을 지닌 역사 자료를 중심으로 십자군 전쟁의 역사를 보았던 것이다.¹⁰⁾ 프랭코판이 자신의 책의 논리 전개에 있어서 중심적인 자료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시 비잔틴 제국의 황제인 알렉시우스 콤네노스의 딸인 안나 콤네네(Anna Komnene)가 쓴 『알렉시아』(Alexia)라는 작품이었다(또한 그가 이 작품을 번역하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22. 안나 콤네나’[Herrin, 2010: 457-471] 참조하라).¹¹⁾ 본고는 기존의 다른 역사가들의 주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프

8) 과거 성서에 대한 이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라틴어 성경을 보다가, 헬라이어 문헌[신약성경 원문 그리스어]을 접하게 될 때 불가타 역본(라틴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듯이 말이다.(Pelikan, 2019: 366-367. “12. 완전한 인간”, 345-373 참조).

9) 참고로 최덕성 교수는 동로마황제인 알렉시우스 콤네누스의 파병요청에 따른 것이나 그것은 단지 명목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군전쟁과 관련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십자군 원정(遠征)은 로마교회가 일으킨 이른바 성전(聖戰)으로, 1095년에 시작하여 약 200년 간 진행되었다. 이 전쟁은 명목상으로는 동로마제국 황제의 요청을 받아 시작되었다. 교황청은 파병요청을 받고서 사람들의 눈을 나라 밖으로 돌려 자국의 갈등을 해소하고 동·서방교회 간의 긴장을 서방교회 편에 유리하게 평정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국왕은 국왕대로, 영주는 영주대로, 농부는 농부대로 그 기회를 권력, 재물, 명예, 신앙을 위한 호기(好機)로 삼고자 했다. 십자군전쟁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민족적 동기들이 뒤섞여 일어났으나 일차적으로는 종교적 동기로 시작되었다.”(최덕성, 2003: 9. “1. 십자군전쟁.” 9-40 참조).

10) 존 J. 노르치의 『비잔티움 연대기 5: 십자군의 시대』를 번역한 남경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역주(譯註)를 달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세계사에서 1095년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성지 탈환을 주장하면서 십자군 원정을 제안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 보듯이 교황에게 그 구상을 처음 전해 준 사람은 동방 황제인 알렉시우스였고, 처음 발의한 곳도 피아첸차 공의회였다.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후대의 역사가 서유럽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남경태, in Norwich, 2008: 74).

11) Komnene, Anna (2009). *Alexia*. Revised trans. P. Frankopan. London.

랭코판의 주장을 더 넓히려고 한다. 어느 특정한 누군가가 장본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유들로 인[諸 要因]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식의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 것이다. 십자군 전쟁의 원인[動機]은 교황과 황제의 목적 외에도 십자군 운동에 참가한 이들의 다양한 목적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제기된 부분이기도 하다. 십자군 전쟁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십자군 전쟁과 관련해서 오늘날 기독교와 이슬람과의 잘못 이해되어진 부분을 어느 정도 시정[再考]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본고의 제목은 “십자군 전쟁의 원인에 대한 재고: 그 원인을 중심으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연구문제 1: [十字軍戰爭의 諸原因]

십자군 전쟁의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연구문제 2: [十字軍戰爭의 理解에 對한 示唆點]

오늘날 십자군 전쟁을 이슬람과 기독교 양(兩)종교 간의 대립으로 이해하는(십자군 전쟁을 정치화 하는) 이들에게 십자군 전쟁의 원인의 다양성은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가.

본고는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a) 먼저 십자군 원인들을 다루기에 앞서서 왜 십자군 원인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지 그 이유[背景]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역사 자료의 선택이 다른 결과[新歷史]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드사이언스가 아닌 상대적으로 소프트사이언스(Soft Science)에 속하는 역사[歷史學]는 “원인A=결과B”[因果關係]라는 단순한 도식의 전개는 과거 연구자들의 지적처럼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b) 십자군 전쟁의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원인들을 범주화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십자군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기술할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 자료에 근거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다른 연구결과들에 대한 단순한 반복[列擧]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말이다. 구체적으로 교황 우르바누스 2세와 동로마황제 알렉시우스 콤네노스와 이슬람의 세력 확장, 그리고 참가한 고위 귀족들, 그리고 군인[貴族]과 일반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할 것이다. c) 십자군 전쟁의 원인의 다양성을 통해서 오늘날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립의 대명사인 십자군 전쟁이 종교라는 단일 범주만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과 관련된 기술을 하고자 한다. 심하게 말해서 그저 당시에 있었던 평범한 폭력적인 전쟁에 불과했다는 점에 대해서 말이다. 이는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을 통해 오늘날 세간에 돌아다니는 ‘십자군 전쟁’과 ‘지하드’(성전)는 단지 언어적 수사에서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示唆)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¹²⁾ 이것이 무엇보다도 본 글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12) 다음을 참조하라. “그렇다면 우리 한국 학계는 십자군 전쟁을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할까? 십자군 전쟁에 대해, 그리고 그 전쟁의 당사자인 유럽 측과 이슬람권에 대해 한국 학계가 긍정이나 부정의 시각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치적·문화적·종교적으로 민감한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우리가 한쪽 편을 들거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단 말인가? 필자는 생각한다. 십자군 전쟁은 역사상 일어났던 사건임이 분명하며, 우리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었기에 전쟁 당사자인 양측 중 한 곳에 편향되기보다는 양측 모두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3 관점 밝히기와 연구한계

또한 관점을 밝혀야 할 것 같다. 기독교[아니 그 범위를 좀 넓혀서 종교]를 나쁜 변호하기 위한 글이다. 이선경이 자신의 책, 『(21세기에 새로 쓴) 인간불평등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십자군 전쟁이 순수하게 종교적인 목적 때문이었다는 단일 원인에 의한 십자군 전쟁의 원인을 주장할 경우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이 호전적(好戰的)인 종교광신자(宗教狂信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혹시 이러한 주장[批判]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본 글을 통해서 ‘절대로 그것이 아니올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비록 200년 내내 쉬지 않고 싸운 것은 아니었다고는 해도, 만약 그 전쟁이 순수하게 혹은 주로 성스러운 종교적 목적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기독교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종교이며 십자군을 일으키고 참여한 사람들은 집단적으로-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종교적 광신에 빠진 미치광이들이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이선경, 2018: 210-211).

자크 G. 루엘랑(Jacques G. Ruelland)은 자신의 책, 『성전, 문명충돌의 역사: 종교갈등의 오랜 기원을 찾아서』(Histoire de la Guerre Sainte)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만약 기독교 사상만을 본다면 십자군들이 저질렀던 그러한 만행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십자군 원정 뒤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서유럽 국가들이 품고는 있었으나 표명하지 않았던 제국주의적 팽창 야욕이 감추어져 있었고,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언급된 동기들보다는 이러한 야망들이 교황으로 하여금 중동 지역에 개입하도록 부추겼을 것’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다.”(Ruelland, 2003: 87).

본 글은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다. 바로 비전문가의 글이라는 점¹³⁾과 더불어 십자군 전쟁은 200년(1096-1291)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것이지만 십자군 전쟁의 원인들을 제1차 십자군 전쟁(The First Crusade)과 관련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여 제(諸)원인들

한다고, 즉 양측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기간 동안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해왔을까? 공정한 자세로 양측의 입장을 보아 왔을까? 필자가 보기에 대답은 ‘아니오’이다. 즉 양측에 대해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지 못해 왔다. 그 이유는 근대 이후 서구 유럽 문명이 세계를 주도했기에 우리로서는 그들의 학문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다보니 유럽 중심의 시각을 내포한 자료를 읽고 다루며 그 시각에 자연스럽게 경도되지 않을 수 없었던 데 있다.(김능우, 2016: 9).

13) 토머스 F. 매든(Thomas F. Madden)이 자신의 저서 『십자군: 기사의 영웅들의 장대한 로망스』(The New Concise History of the Crusades)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과 함께, 자신의 저술 목적을 밝히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십자군은 서구 역사상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대상 중 하나이다. 지난 30년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십자군에 대한 방대한 연구 성과를 내놓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들의 연구 덕분에 이제 전보다 십자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예상하게도 이들 연구는 대부분 매우 전문적인 학술 저널이나 논문을 통해서 소개되는 탓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일반 독자들이 접할 수 있는 책을 쓴 학자는 소수에 불과한데, 그나마 그중에 몇 권은 다소 따분하다. 어떤 사람이 십자군에 흥미를 갖고 책을 찾으려 서점에 간다면, 그는 전문적인 학자가 최고 수준의 연구를 바탕으로 쓴 책보다는 소설가라든지 저널리스트, 심지어 전직 수녀가 쓴 책을 사들고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9-11이후로 십자군에 관한 대중적인 역사서가 많이 등장했으나 대부분 책은 이미 오래전에 역사학자들이 일소한 신화들을 다시 한 번 주워담는 데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책의 목적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서도 반세기에 걸친 학술적 연구의 뛰어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십자군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다.”(Madden, 2010: 18-19). 여기서 전직 수녀는 카렌 암스트롱(Karen Armstrong)을 지칭할 것이다.

을 일정 범주로 거칠게 묶으려고 하였다든 점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단어나 이름 등은 통일성 없이 저자들이나 번역가들이 사용하는 그대로 옮기려고 한다. 이는 그 명칭을 라틴식으로 읽을 것인가 영어식으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 프랑스 등 다른 식으로 읽을 것이냐에 대한 저자나 번역자들의 그들 자신이 처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II 십자군 전쟁의 원인에 대한 재고

1 역사에서 자료선택[解釋]과 상관관계의 문제

나는[W. B. Bartlett] 이 책에서 동방에서의 십자군 전개에 대한 해석을 묘사해보려고 시도했다. 역사는 정확한 학문이 아니다. 역사가는 흔히 언제 어디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원인’에 관한 한 엄청난 논쟁의 여지가 다분하다. 논평가들도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원인을 밝힐 수 없는데, 특히 입수할 수 있는 많은 기록들이 모순되고 피상적인 것을 생각해보면 천 년의 사건들이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그리 놀라운 것은 없다.(Bartlett, 2004: 22)

역사는 역사 자료의 선택이 그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역사적 결과물을 만든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新資料⇨新選擇⇨新解釋⇨新結果物]. 소프트웨어에 가까운 역사는 하나의 뚜렷한 결정적인 요인에 의한 인과관계[相對的으로 hard science에 해당하는 학문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보다는 여러 요인들이 서로 얽히고설킨 복잡한 상관관계를 통해 진행된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諸要因⇨相關關係⇨歷史形成]^{14)·15)}

1) 상이한 자료 선택[해석]은 서로 다른 역사 기술도 가능케 함

역사는 어떤 자료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학문이다. 물론 대다수가 동의하는 부분을 제외한 그렇지 않는 대립적인 일부 부분에서는 다른 역사 자료의 선택은 다른 역사의 기술(記述)과 평가(評價)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인물과 사건 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연구자마다 상이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경우를 흔하지 않게 볼 수 있다. 그전에 개인적으로 쓴 글에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전적으로 대립의 역사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자료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인 프리드리히 2세(Friedrich II)와 살라딘[Saladin, Salah al-Din Usuf]의 조카, 알-카밀

14) “알려진 모든 사실이 수집되고 그것들이, ‘객관적’으로 재현된다면 논쟁할 필요가 있겠는가?[Novick, 1988: Capt 1] 6장에서 다루겠지만 완전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과거라는 관념은 수십 년 전부터 통용되지 않는다. 오늘날 역사적 지식은 새로운 질문, 새로운 정보, 새로운 해석 시도의 조합을 통해 진보한다는 일반적 견해가 우세하다. 우호적 논쟁과 경력을 위협할 수도 있는 난타전에 이르기까지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이견은 대부분의 역사 연구와 저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Maza, 2019: 197-198). Novick, Peter (1988). *That Noble Dream: The ‘Objectivity Question’ and the American Historical Profes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참조.

15) “학문용어로 말하자면, ‘상관성은 인과성을 입증해주지 못한다.’ ... ‘상관성-인과성 딜레마’”(Kast, 2019: 65).

(al-Kamil)이 성지 예루살렘을 놓고 상호존중의 모습을 보인 것을 이안 아몬드(Ian Almond)의 저서 『십자가 초승달 동맹』(Islam, the People and the State: Political Ideas and Movement in the Middles East)에서 기술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 적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아몬드의 책을 읽을 당시에는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인 프리드리히 2세가 매우 멋졌다. 시쳇말로 ‘엄지 척’이었다. 교황의 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이슬람과 우호적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개인적으로 쓰고자 하는 글의 내용에 딱 맞는 사례이기도 했었다. 프리드리히 2세는 시칠리아에 있는 무슬림들을 추방하라는 교황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본토인 루체라(Lucera)는 곳으로 2만 명이라는 되는 무슬림들을 그 당시에 이주시켰다. 그리고 이들을 자신의 친위대로 활용하였다(Montefiore, 2012: 447 참조). 그 당시 루체라의 무슬림에게는 종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주군이었던 프리드리히 2세에 대한 충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연구자의 말마따나 루체라의 무슬림에게는 프리드리히 2세는 자신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자신들이 섬겨야 하는 주군(主君)에 불과했으며, 프리드리히에게 루체라의 무슬림들은 언어와 종교만 다를 뿐 여전히 자신의 백성이었다는 지적이었다.(Almond, 2010: 104. 참고로 프리드리히는 6개 언어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거기에는 아랍어도 포함되어 있었다).¹⁶⁾ 그리고 프리드리히 2세의 인기는 이슬람 지역의 무슬림들에게도 조차 인정했다고 한다. 당시 프리드리히 2세는 ‘스투포르 문디’(Stupor Mundi, 세계의 경이)로 불려졌을 뿐만 아니라, 아랍인들 사이에서는 그를 부를 때에 ‘알엠베로(황제)’로 또는 ‘두 번째로 세례 받은 술탄’으로 일컬어졌다고 한다. 성지 예루살렘의 바다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 및 나사렛이나 베들레헴 등을 오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지정된 지대를 포함해 향후 10년 동안 기독교도의 손에 넘겨진다는 계약을 맺은 황제 프리드리히 II세[신성로마제국 황제로 Barbarossa, ‘붉은 수염’의 프리드리히 1세의 손자다. 독일 나치 제3제국의 러시아 침공 작전명인 바르바로사 작전(Unternerhemen Barbaross)이 그의 할아버지 이름에서 온 것이다]와 살라딘[Salah al-Din al-Ayyubi, 1138-1193년. 쿠르드 족이다]의 조카로,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개종시키려고 애를 썼던 이집트의 술탄 알 마릭 알 카밀(al-Malik al-Kamil)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서로의 종교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일화다.

“예루살렘에서의 첫날 밤, 알 카밀은 기독교도 황제가 머무는 동안 그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도시의 모든 미나렛(모스크 첨탑)에서 기도를 알리는 소리를 외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카디는 깜박 잊고 무에진(하루에 다섯 번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를 크게 외치는 사람)에게 술탄의 명령을 전하지 않아 그날 밤에도 기도를 알리는 소리가 여느 때처럼 도시에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카디(qadi)는 무에진들을 크게 꾸짖으면서 오늘 밤에는 조용히 하라고 일렀다. 그러나 다시 그 다음 날이 밝자 황제는 카디를 불러 물었다. ‘기도를 알리는 소리를 외치던 사람이 어젯밤에 어디 갔지?’ 카디는 술탄의 명령을 설명했다. 그러자

16) 다음도 참조하라. “이슬람에서는 금지되어 있지만 무슬림들이 루체라에서 돼지를 키웠다는 증거가 남아있으므로 기독교도 이웃들처럼 돼지고기를 먹을 수도 있다. 루체라 성 안에 기독교도와 무슬림이 운영하는 포도주 상점이 있었기에 그들이 포도주를 만들고 마셨다는 것은 확실하다.”(Almond, 2010: 98).

프리드리히는 ‘네가 나의 땅을 방문할 때 내가 너를 위해 교회 종을 울리지 말라고 할 듯싶으나?’라고 대꾸했다. 연대기 작가들은 프리드리히가 그 후 무에진[muezzin]과 모스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보상의 뜻으로 돈을 주었다고 주장한다”(Almond, 2010: 109-110).

그런데 W. B. 바틀릿(W. B. Bartlett)의 저서인 『십자군 전쟁: 그것은 신의 뜻이었다.』(God Wills It!)에서는 프리드리히 2세에 대한 기술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물론 이는 장대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십자군의 역사-200년 동안 8차례-를 책의 주제에 맞게 선택적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온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바틀릿의 책은 아몬드의 책에 비해 번역도 빨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 책을 늦게 읽게 된 이유는 책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주[註]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프리드리히의 2세의 사생활에서도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다. 결혼한 첫날밤 자신의 부인인 올랑드[정확히 둘째 부인 Yolande]와 동침하지 않고 부인이 데리고 온 하녀와 같이 했다는 이야기였다(Bartlett, 2004: 413) 그뿐만 아니라 신성로마 황제인 프리드리히 2세의 통치권이 당시 키프로스[실질적인 지배자인 장 디블랭과의 관계에서]와 같은 곳에서는 거의 먹혀들지 않았다는 인상도 받게 되었다. 왜냐하면 1231년 프리드리히가 총독으로 남기고 간 대리인이었던 리하르트 필란제리(Richard Filangieri)가 강한 저항으로 인해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바틀릿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었다. “자신의 제국 안에서 황제는 최고의 전제군주였고, 그의 말은 곧 법이었다. 그런데 프랑크인들이 널리 퍼져 있는 지역에 산재한 몇 개의 도시만을 점유하고 있을 뿐인 우트르메르[Outremer, 본토 외의 해외 식민지를 의미함]에서는 이러한 중앙 집권적 체제가 통하지 않았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각 도시가 자신의 지역 군주에게 충성을 맹세할 뿐이었다.”(Bartlett, 2004: 421-422). “우트르메르에서의 삶의 현실은 이러한 비현실적인 생각이 결코 실행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의미했다.”(Bartlett, 2004: 426. “23. 여전히 불안한 예루살렘” 411-426 참조).

프리드리히 2세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 즉 1229년 2월 11일에 알-카밀이 프리드리히 2세간의 예루살렘의 소유권을 인정한 자파 조약¹⁷⁾[프리드리히 2세의 1229년 9월 예루살렘 입성]에서 알 카밀과 프리드리히 2세간에 서로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알 카밀은 완충지역이 필요했었고, 프리드리히는 자신의 파문한 교황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민 말루프(Amin Maalouf)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너그러움이 가능했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제안이 나왔던 시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사실 성지 예루살렘은 알 카밀의 세력권에 있지 않았고 얼마 전에 사이가 틀어진 동생 알 무아잠[al-Mu'azzam, Ayyubid sultan of Damascus]의 수중에 있었다.

17) 1229년 2월 11일에 술탄 알 카밀과 체결한 조약 조항은 교황이 아닌 이슬람을 만족시키는 조항들이 상호 인정되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즉위한 프리드리히 2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즉 오마르 모스크와 알 아크사 모스크는 회교도의 수중에 남겨두고, 성묘는 기독교인들에게 반환된다는 내용이다.(Tate, 1999: 122).

알 카밀은 자신의 벗인 프리드리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해서 알 무아잠의 야심을 저지하는 완충국을 건설했으며 하는 생각을 가졌다. 길게 보면 다시 힘을 회복한 예루살렘이 이집트와 그 위협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아시아의 호전적인 전사들[몽골을 말함-웁긴이] 사이에서 효과적인 중재역을 할 수 있을 터였다. 열렬한 무슬림이라면 결코 냉정하게 성지를 포기할 수는 없었겠으나 알 카밀로 말할 것 같으면 백부인 살라딘과는 엄연히 달랐다. 그에게 예루살렘은 무엇보다 정치적이자 군사적인 사안이었다. 종교적 입장은 여론을 상대할 때에나 고려할 문제였다. 한편 스스로를 그리스도 교도도, 이슬람 교도도 아니라고 느끼고 있던 프리드리히도 그에 걸맞은 태도를 보였다. 그가 성지를 탐냈던 것은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묵상하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그 위험을 달성함으로써 동방으로의 출발을 늦춘다고 자신을 파문한 교황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생각이었던 것이다.”(Maalouf, 2002: 320; Kikuchi, 2013: 118 참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피터 프랭코판이 제1차 십자군 전쟁의 원인을 교황 우르반누스 2세보다는 동로마황제인 알렉시우스에게 돌린 것도 새로운 자료의 선택과 해석에 기인한 것이었다. 십자군 전쟁과 관련해서 과거 서유럽 중심의 자료인 그리고 서방 세계에서 자주 인용되었던 『게스타 프랑코룸』(Gesta Francorum, the Deeds of Franks)에 우선적 가치를 두기보다는 동로마황제의 딸인 안나의 저서인 『알렉시아』(Alexia)와 교차 비교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바틀릿은 안나 콤네나가 저술한 『알렉시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말이다. 존 노리치도 자신의 책 속에서 안나 콤네네의 기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는 마찬가지다.(Norwich, 2008).

“십자군 운동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심각한 문제들이 이미 있었다. 예를 들면, 신화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은 복잡한 딜레마였다. 천년이 지난 지금에는, 비잔틴 제국과 서유럽의 연대기 작가들이 각기 정세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데서 이러한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물론 당시의 연대기 작가들은 객관적인 서술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지휘관으로부터 후원을 얻으려고 했으므로 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견해로 그 지휘관을 묘사하려고 했다. 게다가 그들은 대개 자신들이 묘사하고 있는 사건들이 일어난 지 수년 후에 연대기를 썼다. 이러한 예를 안나 콤네나(Anna Comnena)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데, 콤네나의 『알렉시아스』(Alexiad)는 우리가 비잔틴의 주요 출처로 삼고 있는 작품이다. 알렉시우스 황제의 딸로 안나는 당연히 객관적일 수가 없었던 데다, 30년이나 흐른 뒤에 이야기를 썼다는 사실로 인해 그 정확성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Bartlett, 2004: 110-111)¹⁸⁾

개인적으로 십자군 전쟁에 관해서 크게 당시 전쟁의 당사자들과 관련해서 3가지 관점

18) 페트루스(Peter the Hermit)에 대한 역사가들의 기술의 차이가 존재한다. “아미앵의 은둔자 페트루스를 따라온 무리들은 헝가리와 발칸 국가들을 통과하는 동안 막무가내식의 약탈을 자행했을 뿐 아니라 1096년 8월 1일 콘스탄티노플에 이르러서는 약탈을 멈추지 않았다.[Ostrogorsky, 1956]. 384] 십자군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비잔티움 연구자들의 저술 속에서는 잘 나타나지만 서구에서 발간된 십자군 전쟁에 대한 저서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으며 혹 언급된다 하더라도 단 할 줄로 묘사되고 있다. 2004년에 발간된 제1차 십자군 전쟁 전문서인 토머스 에스브리지의 『제1차 십자군』도 그들의 약탈 행위를 단 한 줄로 묘사하고 있다.[Asbridge, 2004: 100]”(김차규, 2009: 157) Ostrogorsky, George (1956). *Historie de l'etat byzantin*. Paris.; Asbridge, Thomas (2004). *The First crusade*. Oxford University Press.

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게스타 프랑코룸』과 같은 유럽의 연대기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서로마)의 시각과 『알렉시아』와 같은 자료에 근거한 비잔틴제국의 시각과 더불어, 아랍인의 눈으로 본 자료에 근거한 이슬람의 시각이 그것이다. 과거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는 관점의 대두와 더불어 더 나아가서 미시사적 접근(微視史的接近·微時史[日常史]擡頭)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⁹⁾ 이는 십자군 전쟁에서도 과거 서유럽중심의 역사 기술에서 벗어난 비잔틴제국(동로마제국)과 이슬람중심의 기술의 가능성을 더 넓혀 줄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미시사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역사의 기술은 다양한 자료에 근거한 다른 해석적 기술(記述)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역사적 결과에 대해서 그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쉽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과거 서양[유럽] 중심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에 대한 반성[反作用]과 더불어 거대담론의 해체라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와도 일부 관련된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아민 말루프(Amin Maalouf)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사실 내가 쓰고 싶었던 것은 역사책이라기보다는 십자군 전쟁 이야기를 다룬 ‘실화 소설’이었다. 그것은 여태껏 무시되어 왔던 관점에서, 서양과 아랍 세계가 대치하였고 오늘날의 관계까지 결정하는 만든 격동의 두 세기를 다룬 실화 소설을 말이다.”(Maalouf, 2002: 11).

2) 폭 넓은 상관관계를 지닌 역사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임을 주목해야 한다. 만성질환의 원인/결과 관계는 아주 복잡하며, 단일한 원인은 없다(Trevathan, 2017: 389, 11장 8번 미주)

과학처럼 하드사이언스(hard science)가 아닌 상대적으로 소프트사이언스의 경우에는 ‘A원인⇒B결과’라고 말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한 마디로 소프트사이언스는 인과관계보다는 상관관계의 결과물에 가깝다는 점이다. 과학의 경우도 그 성질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프트사이언스에 가까운 것도 존재하기도 할 것이다. 역사는 하드사이언스보다 소프트사이언스에 상대적으로 더 가깝다. 로마제국의 멸망 원인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연구결과에서도 역사학이 소프트사이언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로마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무엇이라고 했을까? 딱 하나의 원인만 존재하는 것일까? 피터 터친(Peter Turchi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개수를 들으면 아마 놀라게 될 것이라고. 로마제국

19) 다음을 참조하라. “1971년 출간된 폴 벤츠는 자신의 책,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Comment on écrit l’histoire)의 머리말에서 역사학은 결코 과학이 아니라고 선언한다. 이는 사실상 학문은 객관적 지식에 체계여야 한다는 근대적 규범에 대한 도전이었다. 앞서 소개했던 진즈부르크의 『치즈와 구더기』나 로버트 단틴의 『고양이 대학살』(The Great Cat Massacre)과 같은 미시사적 연구들은 사실 근대적 관점에서는 학술적 주제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소한’ 것들이었다. 말하자면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논의들을 담아 낼 거대 담론이 없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그런 작업들에 열광했다. 그들의 열광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그런 미시사적 연구들은 거대 담론에서는 등장할 순서가 오지 않았던 과거 시대의 실제적 삶에 대한 보고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들이 등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 과학적 합리성에 의지한 방법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과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대안적 통로에 대한 갈증의 반영이었다.”(박승역, 2015: 205).

의 멸망 원인이 한 두 개도 아니고 그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놀랄 것이라는 지적이다. 30년 전에 연구에 의하자면 로마제국의 원인이 무려 210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30년 전의 연구결과인 데도 말이다.

로마제국의 쇠퇴와 멸망에 대한 설명은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의 『로마제국 쇠망사』(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이래로 가내수공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30년 전에 독일의 한 역사가[Demandt, 2016 참조]는 로마제국의 멸망 원인에 대한 설명을 목록으로 작성한 결과 모두 210가지나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²⁰⁾(Turchin, 2018: 39)

로버트 단턴(Robert Darnton)도 유명한 자신의 책, 『책과 혁명: 프랑스 혁명 이전의 금서 베스트셀러』(The Forbidden Best-Sellers of Pre-Revolutionary France)에서 ‘책은 혁명을 일으키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비슷한 의미의 진술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책은 혁명을 일으키는가?’ 이처럼 문제를 아주 둔감하게 제기하는 일은 프랑스의 교활한 뒷, 그릇된 질문에 발을 들여놓게 만들 것이다-다시 말해서 문제를 지나칠 정도로 단순화시켜서 왜곡시킬 것이다.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인과관계의 직선적인 개념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책을 사는 행위를 바탕으로 독서, 독자의 신념, 여론의 동원은 물론 대중이 혁명의 행위에 참여하는 과정까지 논증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전파의 일직선적인 원인-결과 모형으로는 단지 여론의 비문자적인 원천뿐만 아니라, 텍스트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활발히 전유하는 행위라 할 수 있는 독서에 이르기까지 독립적인 요인들을 제대로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책의 전파에 관한 연구는 혁명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관계가 없는 것인가? 나는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좀 더 복잡한 모형을 제안하고 싶다.”(Darnton, 2004: 299). 십자군 전쟁의 원인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십자군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나? 확실한 것은 딱 뿌려지게 하나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一刀兩斷不可]. 다만 여러 요인들 중에서 어떤 하나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중 있는 영향력을 드러냈다 할 정도로 기술은 가능할 수 있을 뿐이다. 어느 요인이 시간적으로 도화선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는 식의 기술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십자군 전쟁의 원인이 종교 하나만에 국한(局限)될 수도 없다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저명한 영국의 역사가 조너선 라일리-스미스(Jonathan Riley-Smith, 1938-2016)도 말했듯이, 십자군 전쟁에 대한 해석은 각 시대마다 학자들마다 다양하여 논란이 그치지 않는 문제이다. 하지만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종교적 전쟁이라 불리는 것들이 단지 종

20) Demandt, Alexander (1984). *Der Fall Roms: Die Auflösung Des Römischen Reiches im Urteil der Nachwelt*. Munich: Beck.; 참고로 김대식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9세기 어느 독일 역사학자는 로마가 멸망한 이유로 게르만족, 전염병, 경제의 쇠퇴, 황제들의 문제 등을 모두 나열한 결과 총 100개가 넘는 원인을 도출하기도 했다. 이는 다른 말로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김대식, 2019: 199-200); 최근 읽은 책인 제니퍼 라이트(Jennifer Wright)의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Get Well Soon: History’s Worst Plagues and the Heroes Who Fought Them. DeFiore and Company Literary Management)에서 저자는 “안토니누스역병”(Antonine Plague)을 지적하고 있다.(Wright, 2020: 15-37 참조).

교적 문제로 그치지 않고 예외 없이 세속적(경제적 혹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긴밀히 얽혀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런 만큼 십자군 전쟁 역시 다른 모든 전쟁처럼 인간과 사회의 모든 의식·무의식적 다면성이 응축된 사건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지배 계층 내 권력 경쟁, 제국주의, 민족·종교 간 갈등, 개인들의 탐욕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들이 일정 비율로 혼합되어 있었음에 틀림없다.(이선경, 2018: 210)

참고로, 어떤 역사적 결과에 A=B라는 절대적인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이에 대해 반사적인 이익을 맞볼 수도 있지만 반면에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지내야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A(우리가·내가)=B(무엇인가를 했[었]다)라고 주장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것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그로 인한 反射的利得取得], 과거 자신들이 성취했다는 결과물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될 경우, 그것도 생각하는 것보다 큰 파괴력을 지닌 부정적인 결과를 부산물로 가져올 경우, 발생하는 그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자본주의에 발흥과 관련해서 마치 ‘기독교=자본주의부흥’식의 인과관계를 가진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었다.²¹⁾ 과거 많은 설교자들이나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기독교와 자본주의 간의 인과관계를 가진다는 주장은 널리 퍼졌었다. 자본주의가 발흥하는 데에 있어서 기독교가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물론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와 유사하게 가톨릭이나 불교 등도 자본주의의 발생[發達]에 일조했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상관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인과관계로 이해해서 모든 것이 마치 특정 종교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 것이다. ‘종교→〈인과관계〉→자본주의발흥’ 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곳곳에서 자본주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사태를 통해서 증명되었다. 카지노자본주의(Casino capitalism)네, 불로소득자본주의(Corruption of capitalism)네, 재난 자본주의(disaster capitalism), 전쟁자본주의(War Capitalism)²²⁾네, 뭐네 ….., 뭐네 하면서 말이다. 이제는 반대로 ‘자본주의문제점→〈인과관계〉→(특정) 종교’라는 주장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가? 종교가 자본주의에 크게 일조했다고 하는 강력한 주장은 자본주의가 지닌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기독교나 다른 종교가 일조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가 지닌 문제점에 대한 책임에서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記憶]해야 할 것은 기독교는 어느 특정한 이즘(理念, Ism)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것은 이즘[主義]이 아니라 어떤 이즘[主義·思想·理念·信念]이 기독교세계관[基督敎精神·耶蘇精神]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도구[CANON, 不變의尺]이기 때

21) 다음은 마이클 S. 호튼(Michael S. Horton)의 지적이다. “베버가 제공한 추론들은 신학적 식견이 부족할 경우도 종종 있다. 예를 들어, 베버는 칼빈주의자가 물질적 번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입증하려고 특히 세상에서 적극적이었다고 말하나. 가장 대표적인 개혁주의 문헌과 청교도 문헌을 조금이라고 읽어 보았더라면 이런 미심쩍은 주장은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테지만, 베버는 신학적 식견이 부족한 태도를 고집했다.”(Horton, 2019: 202)

22) 스벤 베케르트(Sven Beckert)가 쓴 단어다. “세계가 그토록 빠르고 철저히 재창조될 수 있었던 것은 생산과 무역, 소비를 조직하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방식의 핵심에는 노예제, 원주민 약탈, 제국의 팽창, 무력을 동원한 교역, 사람과 토지를 장악한 기업가가 있었다. 나는 이런 체제를 전쟁자본주의(war capitalism)라고 부른다.”(Beckert, 2018: 24).

문이다.(강상우, 2011 참조). 이를 망각하고 기독교가 마치 무엇인가를 만들어냈다고 그것도 기독교 혼자서 했다고 한다면 이는 기독교 정신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부정적인 부산물(副産物)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만 할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참고로 거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기독교는 민주주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도, 반공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다. 물론 기독교는 전제주의도 공산주의도 그 무엇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A=B라는 식의 단순한 인과관계를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어떤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서 기독교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기독교가 기독교 정신[本質]에서 벗어나 기독교라는 종교적 수사와 그의 미명 하에서 잘못된 행위를 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오늘날 안티들이 지적하고 있는 기독교의 흑역사와 관련된 홀로코스트, 마녀사냥, 종교재판, 아파트헤이트, 노예제도, 그리고 본 글의 주제인 십자군 전쟁에서의 어두운 역사에서의 기독교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난 단지 종교적 수사에 의한 잘못된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올(ALL)바른 기독교하고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흑역사에 종교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잘못된 종교적 수사에 의해서 일어난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반면교사 삼아서 기독교의 올바른 가르침의 길로 가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기독교가 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실천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을 뿐이다. 올바른 길은 과거 흑역사의 이런 저런 길이 아니라 이런 길입니다라는 삶의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다. 십자군 전쟁의 간략한 개요를 송경근 교수의 기술을 통해서 먼저 봐보자. 길지만 이해를 위해서 인용하기로 한다.

황제 로마누스 디오게네스(Romanus Diogenes)가 1071년 만지케르트(Manzikert) 전투에서 셀주크(Seljuke)의 술탄 알프 아르슬란(Alf Arslan)에게 패한 후 비잔티움 제국은 소아시아 반도의 대부분을 투르크족에게 빼앗기고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 이 틈을 타 외부의 여러 민족들이 비잔티움 제국을 노리고 달려들었다. 투르크족도 그런 민족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슬람 세계도 쇠약해진 아바스 제국이 여러 세력권으로 나누어진 후 서로가 서로와 싸우는 상황이었다. 투르크족과 파티마족(Fatimid, 567-1171)가 대결한 레반트 지방은 두 세력의 대결 속에 힘의 진공 상태가 조성되었다. 반면 서유럽은 서기 1000년 이후 대규모 외적의 침입이 사라지자 인구가 늘고, 농기구가 개량되면서 경작지와 식량 생산이 늘어났다. 또한 이탈리아의 도시들은 동지중해와 상거래를 재개했다. 서유럽에서는 이런 상승하는 기운을 외부로 분출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이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알렉시우스 콤네누스(Alexius Comnenus)가 로마 교황 우르반 2세(Urban II)를 통해 서유럽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고, 이것이 성지를 되찾고자 하는 열정과 결합하여 막강한 군대가 조직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 목적과 상업적 이익을 바라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군대가 종교적 열정이 매우 큰 군대임은 틀림없었다. 이 군대는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주변에 공포를 불러일으키기는 했으나, 운 좋게 분열된 레반트 이슬람 세계를 공격하여 자신의 교두보인 여러 개의 십자군 왕국을 건설했다. 이 십자군 왕국은 유럽 본토와 떨어져 여러 가지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대로 유지되었다. 십자군 왕국

은 힘의 분열로 야기된 힘의 공백 상태를 뚫고 건설되었으며, 힘의 분열 상태를 이용하여 유지될 수 있었다. 한때 살라딘의 지휘 하에 통일되었던 이슬람 세력이 십자군 왕국을 위협하기도 했다. 하지만 십자군 왕국은 이것을 그럭저럭 극복하면서 200년간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260년 아인 잘루트에서 남하하는 몽골 세력을 격파한 후 시리아를 손에 넣고 레반트 지역에서 제1의 세력이 된 맘루크(1250-1517)가 몽골과 십자군의 연합을 막기 위해 수차례 전투를 치르고 결국 레반트 최후의 십자군 요새인 아카를 1291년 함락시키면서, 십자군의 공식적인 역사는 종결되었다.(송경근, 2009: 185-187).

2 십자군 전쟁 원인의 다양성

십자군 전쟁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리고 복잡하다. 전쟁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다양했던 것처럼 말이다. 아민 말루프(Amin Maalouf)는 자신의 저서,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Les Croisades vues pas les Arabes)에서 십자군 전쟁의 참가자들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이 서유럽인들은 그들이 으레 보아왔던 용병들보다 규모가 큰듯했다. 그들 중에는 수백 명의 기사들과 상당한 수의 무장한 보병들도 있었지만 수천 명에 달하는 여자들과 아이들, 심지어 누더기를 걸친 노인들까지 끼여 있었다. 누가 보면 피난길에 오른 난민의 행렬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하나같이 십자가 모양의 천을 등에 기워 붙이고 있다고 했다.”(Maalouf, 2002: 26). 샤르트르의 풀처(Fulcher of Chartres, 프랑스 사제 푸세)도 십자가 전쟁의 참가자들의 다양성을 참가자들의 언어의 다양성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였다. 당시 십자군 전쟁에 참전한 참가자들의 언어의 다양성 못지않게 십자군 전쟁의 참가자의 언어 숫자만큼이나 그 동기 또한 매우 다양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풀처는 나중에 원정에 참가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풍성한 양탄자의 상태를 언급했다. “한 군대 안에 이처럼 다양한 언어가 뒤섞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프랑크인, 플레밍인, 프리지아인, 갈리아인, 알로브로게인, 로타링기아인, 알레마니인, 바이에른인, 노르만인, 잉글랜드인, 스코틀랜드인, 아퀴텐인, 이탈리아인, 다키아인, 아폴리아인, 이베리아인, 브르타뉴인,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등의 인종이 있었다. 만약 브르투뉴인 혹은 튜턴인이 나에게 질문을 했더라도 나는 알아들을 수 없어 대답하지 못했을 것이다.”²³⁾(Frankopan, 2018: 186-187 재인용; Flucher, 1969: I.13.iv. p.88).

다만 그 다양한 원인들을 교황 우르바노스 2세, 비잔틴 황제 알렉시우스 콤네노스, 레반트 지역의 이슬람 세력, 그리고 그들과 별개로 당시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귀족 그리고 민중 등, 네 개의 영역으로 범주화(Categorization, 範疇化)하여 그 범주 안으로 십자가 전쟁에 참여하게 된 동기들을 거칠게 묶어서[分類] 기술하고자 한다.

23) Fulcher of Chartres, (1969). *A History of the Expedition to Jerusalem 1095-1127*. trans. F. Rayan Knoxville.

1) 서로마교황 우르바누스 2세(Urban II): God Wills It! 아니 I WILL IT

진원숙 교수는 자신의 소책자 『십자군, 성전과 약탈의 역사』에서 십자군운동의 직접적 원인으로 1)우르바누스 2세의 야망²⁴⁾, 2)셀주크 투르크족의 강성과 성지순례, 3) 비잔틴 제국의 원조요청 등을 들고 있다.(진원숙, 2006). 진원숙 교수가 첫 번째로 우르바누스를 기술했던 것은 아마도 원인에 있어서 상대적인 중요성 때문일 것이다.(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럴 것이다; 유희수 교수도 거의 같은 기술을 한다. 유희수, 1018: 113-114²⁵⁾ 참조). 왜 십자군 전쟁의 중요한 원인으로 교황 우르바누스 2세를 지목하는 것일까? 피터 프랭코판은 우르바누스가 십자군 전쟁에서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제1차 십자군전쟁을 다루는 현대의 역사서들에서 비잔티움 사절들이 도착한 사실은 언급되었지만, 황제가 도움을 요청해 온 사실과 그 이유는 거의 무시되었다. 그 결과 십자군은 교황이 무장봉기를 호소한 것, 기독교 병사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까지 행군한 것 등으로 널리 인식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 원인이 굳어졌고, 1099년 예루살렘의 성벽 앞에 기사들이 당도했을 때는 하나의 정설로 확립되었고, 그때 이래 작가, 화가, 영화제작자, 기타 인사들이 그것을 일관되게 받아들였다”(Frankopan, 2018: 24)

십자군 전쟁에 전문가인 역사가인 토마스 F. 매든(Thomas F. Madden)도 유사한 지적을 한다. “전통적으로 십자군은 성지 원정이라는 측면에서 규정되어 왔다. 그것은 『프랑크인들을 위한 신의 행적』(Gesta Dei per Francas) 같은 사료 구조를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십자군은 1095년에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군대를 소집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Madden, 2010: 19).²⁶⁾ 무엇보다도 십자군 원정과 관련하여 선포(宣布)한 우르바누스의 연설문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십자군 전쟁의 강력

24) 최덕성은 “교회가 전쟁을 일으킨 까닭”(최덕성, 2003: 11-15)에서 다음의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다. 첫째, 십자군 원정은 ‘성지’에 가고 싶어 하는 서방기독교인들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모슬렘의 ‘신성모독’을 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 둘째, 파병은 인구증가로 인한 식량 부족을 해결하고, 인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 셋째, 교회의 재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교황청은 영주들과 농민들이 전쟁에 나가 죽으면 죽은 자신이 교회에 위탁한 재산을 소유하게 될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 넷째, 교권신장의 장애물인 세속 권력자들의 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 다섯째, 거칠기 짝이 없는 전사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대규모 병력을 외부로 방출시켜 유럽의 내적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였다. … 여섯째, 파병은 동방제국과 비잔틴기독교의 콧대를 꺾어 놓을 수 있고, 교황의 수장권을 동방 지역까지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25) 유희수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길지만 인용해 보기로 한다. “인구 증가, 토지 부족, 평화 운동, 이탈리아 상업의 팽창 등과 같은 11세기 서유럽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십자군 출정의 결정적 원인은 아니다. 그것은 십자군 출병에 유리하게 작용한 맥락에 불과하다. 십자군 원정은 근본적으로 성지 순례 이념에 근거한다. 7세기부터 ‘참회여행’의 한 방법으로 착안되어 11세기에는 평화운동의 위반자들에게 부과되었던 성지 순례 이념은 점차 ‘성전’의 이념으로 진화했다. 십자군은 순례자들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의 혜택을 확인하고 순교자의 관을 받으려 기대했다. 십자군 출정의 직접적 원인은 투르크인이 소아시아(대략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와 성지를 점령한 것이다. 비잔티움 황제 알렉시우스(Alexios) 1세는 성지의 기독교도가 이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며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1095년 클레르몽(Clermont) 공의회에서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서방에서 같은 기독교도를 죽이는 형제 살해적 폭력을 중지하고, 동방에서 고통받는 기독교도 형제들을 도와 예루살렘을 기출하자며 십자군 전쟁을 선포했다. 교황으로서 십자군 전쟁이 내부 갈등(특히 서임권 투쟁)과 폭력을 외부로 해소하고 자신의 권위를 드높일 수 있는 기회였다”(유희수, 2018: 113-114).

26) 찰스 H. 해스킨스(Charles H. Haskins)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가 만약 『프랑크족의 행적』 같은 책만 읽는다면, 십자군이 일련의 성전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즉 우리는 창 끝에 투르크족의 머리를 찢는 ‘기세등등한 광경’에 대비되는 이슬람 작가들의 ‘폐지’와 ‘눈’ 그리고 ‘알라신’이, 이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라는 문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려면 십자군 운동의 식민화, 이탈리아 도시의 제조공장, 유럽에서의 지속적인 이주, 봉건 영주권 및 종교적 군사조직, 이슬람인과의 평화로운 관계, 동방 생활방식의 점진적인 수용 및 그리스도교도 거주민의 관용적인 태도 등을 살펴봐야 한다.”(Haskins, 2017: 286).

한 첫 번째 원인의 자리에 그를 앉도록 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전해져 내려오는 당시 행했던 우르바누스의 연설[說教]의 내용이 매우 강력했기 때문이다(Madden, 2010: 38 “수사 로베르 Robert the Monk의 기록” 일부 내용 참조). 영국의 정치가인 앨런 존슨(Alan Johnson)은 전해 내려온 우르바누스의 연설[Fulcher of Chartres의 Version이라고 한다]의 내용을 분석한 후에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이선경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르반 2세의 설교를 기록한 내용은 다양한 버전으로 남아 있는데, 그[Alan Johnson]가 텍스트로 채택한 것은 프랑스의 사제 푸세(Fulcher of Chartres, 1059-1127)가 메모해 놓은 버전이다. 분석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다. 우르반 2세가 연설에서 교묘하게 사용한 수사학적 기법들은 (1)전쟁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2)십자군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겁박과 처벌을, 그리고 (3)십자군에 참여할 경우 보상을 제시하고 있다.(이선경, 2018: 207-27-28)

십자군 전쟁과 관련해 역사가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윌리엄 A. 펠즈(William A. Pelz)가 자신의 책, 『유럽민중사』(A People's History of Modern Europe)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예루살렘과 성지는 이미 400년 넘게 이슬람 통제에 있었지만, 1095년 11월 27일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성지의 이슬람 무리에 맞선 십자군을 선포했다. 교황은 무슬림을 악마를 숭배하는 천박하고 경멸스러운 종자로 낙인찍으면서 모든 사람이, 심지어 강도까지도 ‘이교도’에 맞선 전투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슬람과 싸우다 죽으면 누구나 죄 사함을 받아 천국에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십자군 원정이 단지 교회의 뜻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말했다.[Thatcher and McNeal eds., 1905: 513-517]”(Petz, 2018: 34)²⁷⁾ 십자군 전쟁의 원인과 관련해서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제일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느냐 안하느냐의 평가에 앞서 확실한 것은 어쨌든 당시 교황이 역사적으로 많은 이들에 의해서 기억될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전만큼은 확실하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교황 우르바누스 2세보다는 비잔틴제국의 황제인 알렉시우스가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프랭크판의 견해에 더 마음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물론 이후로 계속되는 십자군전쟁에 대한 책임은 교황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의 책임에 더 비중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도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것도 사실이다) 이는 무언가에 대한 원인이 있어야[있었기에] 어떤 후속 행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슨 이유로 우르바누스 2세는 십자군 전쟁에 중

27) Johnson, Alan “WHEN POPES DECLARE WAR: A RHETORIC ANALYSIS OF POPE URBAN II’S SPEECH”. <https://rci-eportfolio-aoj.weebly.com/rhetoric-analysis.html>

28) 리처드 플레처(Richard Fletcher)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095년 11월 클레르몽 공의회(Council of Clermont) ...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꽤 확실하다. 교황이 예루살렘을 향한 무장 순례에 참여하는 자들은 단순히 동방에 있는 그들의 그리스도교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영적 공적을 얻어 천국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게 되리라고 선언했다는 점이다. 순례나 성전(聖戰), 그리스도교 세계가 처한 위협, 예루살렘이 가진 불가해한 거룩함 등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었다. 다만 교황 우르바누스는 그러한 요소들을 신앙심이 그다지 세련되지 못했던 서유럽의 기사 집단이 거절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데 엮어냈다.”(Fletcher, 2020: 133).

29) Thatcher, Oliver J. and Edgar Holmes McNeal (Eds.) (1905). *A Source Book for Medieval History*. New York: Scribner’s.

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 그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역사가들의 진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르바누스에게서 십자군 전쟁의 원인을 찾았던 과거 서유럽 중심의 시각은 십자군 전쟁과 관련된 다른 원인들보다도 상대적으로 교황 우르바누스 2세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

카노사의 굴욕[Humiliation at Canossa]이 있는 지 3년 후 하인리히 4세가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가 로마를 손에 넣고 자신이 뽑은 대주교인 클레멘스 3세(Clement III, 1130-1191, 재위 1187-1191)를 대립교황(對立敎皇, anti-pope)으로 옹립한다.(1084) 교황 그레고리 7세는 망명을 떠나 이듬해인 1085년에 사망한다. 이후 클레멘스 3세와 대립관계였던 3명의 교황 중 한 명으로 우르반 2세(Urban, 1035-1099 재위 1088-1099)가 등장한다. 우르반 2세는, 그레고리 7세가 사망한 후 고작 1년 남짓 교황직을 수행하고 자신에게 자리를 넘겨준 교황 빅토르 3세(Victor III, 1026-1087 재위 1086-1087)에 뒤이어 교황직을 계승했다. 하지만 우르반 2세는 교황직의 상반기 대부분을 이탈리아 남부와 프랑스에서 망명 상태로 보내면서 당시 로마를 장악한 대립 교황 클레멘스 3세 및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와 대치해야 했다. 그는 1093년에 가서야 겨우 로마에 거점을 마련하고 점차적으로 힘을 확장해갈 수 있었다. 교황 우르반 2세가 제1차 십자군 전쟁 촉구 연설을 한 것은 2년 후인 1095년의 일이었다. (이선경, 2018: 202-203)

이러한 상황에 처한 교황[교회]의 우르바누스 2세의 동기는 다양했을 것이다. 십자군 전쟁에 대해 우르바누스를 다루기 전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간의 서임권 투쟁(敍任權鬭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하인리히 4세가 로마 교황에게 굴복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 이후에 하인리히 4세는 1084년 로마를 점령한 후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리벤나의 대주교인 기베르트를 대립교황(對立敎皇, Antipapa)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가 바로 클레멘스 3세다. 교황인 우르바누스 2세는 대립교황의 존재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우르바누스는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는 방법도 필요했다. “강력한 적들과 반교황을 상대해야 했던 우르바누스는 교회의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불화를 종식시킨 인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전임 교황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었다. 타이밍도 아주 완벽했다. 비잔티움의 붕괴 일보 직전에서 알렉시우스가 도움을 요청해온 바로 그 시점에, 하인리히 4세의 아내와 아들³⁰⁾이 교황의 편으로 넘어옴으로써 이탈리아 내의 정치적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우르바누스는 이를 통해 힘을 얻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황제에게 비상한 구명줄을 던져 준 결과가 되었다.”(Frankopan, 2018: 160-161). “그레고리우스 7세의 이상을 계승했다고 자부한 우르바누스는 십자군운동을 통해 기독교세계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특히 교황청의 과세권을 기독교세계 전체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교황은 그것을 로마교회와 결별한 그리스정교회를 로마가톨릭교회 아래로 통합하는 기회로 삼으려 했다.”(진원숙, 2006: 16). “우르바누스는 황제의 청원을 귀담아들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다. 비로 알렉

30) 하인리히 4세의 딸아들인 콘라트로 교황의 편에 서서 이탈리아의 왕이 되었다.

시우스 황제의 접근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교황의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지만, 교황의 관심을 끌 만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그 계획에 들어 있었다. 우르바누스가 최근까지도 대립 교황의 반대주장을 물리치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자신의 권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는 더욱 그렇다. 매우 종교적인 시대에 교회의 수장으로서 우르바누스가 진실로 그리스도교 왕국을 보호하고 이교도들로부터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원정대의 정신적인 효험을 믿었다는 사실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Bartlett, 2004: 74) 바틀릿은 당시에 교황이 십자군과 같은 큰 군사를 일으킨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역사에서 이 세대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컸다. 자신의 부대에게 무장하도록 소집하는 것은 왕과 황제의 전형적인 특권이었다. 만일 십자군을 일으키게 된다면, 우르바누스는 유럽 대부분의 중요한 인사들이 분명하게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종교적인 문제뿐 아니라 세속적인 문제에서도 최고의 권력을 주장하려는 결심에서, 그것은 교황의 권위를 확실하게 드러낼 것이었다. 주교의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가장 최근까지도 세속의 통치자들만이 갖고 있었던 특권을 주장하려고 계획한 우르바누스의 공식선언은 그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성명이었다. 만일 자신이 지지하는 목표를 향해 군사지도자들을 성공적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면 교황의 위신은 한층 높아질 것이었다.(Bartlett, 2004: 74-75)

교황은 자신의 개인적인 권위의 성장의 연장선상 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방교회와의 관계의 개선을 또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교회가 분명히 천명한 대로 한 가지 목표는 교황의 권위 아래로 로마가톨릭과 그리스정교회를 재통합하려는 외교 공세의 일환으로 이슬람에 포위된 비잔틴 제국을 돕는 것이었다.”(Pelz, 2018: 34). “만일 우르바누스가 지원을 제공한다면, 또한 그것은 동방과 서방의 그리스도교 세계 사이의 화해과정에서도 유용한 조치가 될 것이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사이의 관계가 누그러들긴 했어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측의 대립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다. 동방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정세에서 최고임을 요구하는 교황의 주장에 대해 반감을 품고 있었다. 게다가 성체성사에 쓰이는 빵에 누룩이 들어가는지 여부와 같이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애매해 보일 수도 있는 교의상의 차이로 동방과 서방 간에 신학적인 분열이 더욱 깊게 느껴졌다. 만약 우르바누스가 비잔틴 제국을 도울 서유럽 원정대의 선동가로 보일 수 있다면, 두 종파의 재통일을 향한 커다란 진정어, 아니면 적어도 그리스도교 세계의 의견을 달리하는 두 집단 사이에 좀 더 깊은 이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터였다.”(Bartlett, 2004: 75-76).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이슬람의 확장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유럽 안에 있는 군사력에서 오는 폭력의 잠정적은 위험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교황 자신과 유럽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동시에 우르바누스 2세는 동반 기독교도를 지원함으로써 서유럽이 이슬람 확장 공세에서 비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Pelz, 2018: 34) “십자군은 서구 군사지도자들의 폭력이 그리스도교 세계에 커다란 위험을 가하고, 교회의 안녕과 충돌할 수 있었던 지역인 서유럽 영토로부터

그들의 공격을 몰아내는 방법이기도 했다. 만약 그들의 호전적인 신념을 그리스도교 세계의 적들에게로 돌릴 수만 있다면 서유럽은 상대적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시대를 누릴 수 있을 것이었다. 이것이 달성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교 사회의 모든 파당에게, 특히 교황권에 이로울 것이었다.”(Bartlett, 2004: 74).

참고로 제임스 캐럴(James Carroll)은 자신의 책, 『예루살렘 광기: 왜 예루살렘이 문제인가?』(Jerusalem, Jerusalem: How The Ancient City Ignited Our Modern World)에서 당시 우르바누스 2세 교황과 은자 피에르(Peter the Hermit, Pierre l'Ermite) 간에 있었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아헨의 알베르트의 자료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 “... 십자군전쟁 후 40여 년이 지나 아헨의 알베르트가 기록한 자료에 따르면, 십자군 원정 당시 영향력을 행사하던 순례자 피에르라는 설교자가 성묘교회에서 깜박 잠이 들었다. 그는 꿈속에서 그리스도의 환영을 보았는데, 그리스도는 그에게 이렇게 명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일어나 예루살렘의 성소들을 정화시키고 종교재판소를 재건하게 하라. 수많은 위험과 온갖 심판을 통과해야 비로소 천국의 문이 부르심과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열릴 것이니라’[Blake and Morris, 1985: 85]. 아헨의 알베르트에 따르면, 이러한 권위를 위임 받은 그는 로마로 건너가 우르바노 2세의 전의(戰意)에 불을 지폈다. 그리하여 우르바노 2세는 예루살렘의 야훼를 위한 피에르의 십자군 원정 주장에 동의했다. 알베르트는 이렇게 적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황이 알프스 산맥을 건너’ 클레르몽까지 갔으며, 그곳에서 ‘신의 명령과 교황의 호소를 들은 프랑스 전역의 주교들, 공작 및 백작들,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한 모든 대공들은 하느님이 명한 바로 그 성묘를 향해 자발적으로 원정에 나섰다.’[Blake and Morris, 1985: 87]”(Carroll, 2014: 233).³¹⁾ 가톨릭 신학자 한스 쿡(Hans Küng)은 십자군 전쟁을 넓은 의미로 파악하면서 그 원인을 우르바누스의 선대의 교황인 그레고리우스 7세에게서 찾기도 한다. 길지만 인용해 보기로 한다.

예언자 무함마드를 계승한 이슬람은 의심의 여지없이 호전적인 종교였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는 이슬람 못지않게 호전적인 종교가 된 것은 나자렛 예수의 비폭력과는 완전히 모순된다. 동쪽을 향한-비잔틴 교회를 복종시키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한-대규모 전쟁을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계획한 사람은 절대주의적 교황권의 선구자인 그레고리우스 7세(힐데브란트 Hildebrandt, 1073-1085년 재위)였다. 그가 이런 계획을 시작하고 20년 후 실제로 제1차 십자군 원정이 일어났다. 교황이자 대장군인 자신의 지휘 아래서 교황의 수위권(首位權)은 비잔티움을 굴복시키고 동서 분열의 시대도 막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 그레고리우스 7세는 이렇게 ‘거룩한 전쟁’의 수호자가 되어 ‘베드로의 깃발’(베드로의 축복)을 자신이 선호하는 부대에게 보냈으며 전쟁을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교황으로서의 처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 예컨대 스페인을 재탈환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하는 자

31) Blake, E. O. and O. Morris (1985). "A Hermit Goes to War: Peter and the Origins of the First Crusade". ed. W. J. Sheils, *Monks, Hermits and the Ascetic Tradition: Papers Read at the 1984 Summer Meetings and the 1985 Winter Meeting of the Ecclesiastical History Society*. London: Blackwell.

들에게 ‘면죄’를 약속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베드로의 ‘전권’(全權)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그레고리우스 7세가 베드로의 자리에 앉은 교황 중에서 가장 호전적인 교황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는 쉬지 않고 군대를 모집했고, 크고 작은 전투를 독려했으며, 화려한 행장을 차리고 말을 몰아 직접 싸움터에 가 있기도 했다. 그는 기존의 원칙, 즉 교회는 피를 흘리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아예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즐겨 인용했다. “자신의 칼을 뽑아 피를 흘리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레고리우스 7세가 죽고 나서 십 년도 되지 않아 제1차 십자군 전쟁(1096-1099)이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 그러나 교황이 먼저 나서서 십자군의 특권(면죄, 세금과 관세 면제, 개인 부채의 지불 유예)을 약속하고 그들을 축복하지 않았더라면 십자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교황이 십자군 전쟁의 실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비껴서 있을 때가 많긴 했지만, 반이슬람적 십자군 전쟁은 처음부터 교황의 작품이었다. 그러므로 십자군 전쟁은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고도 아니고 교회 역사의 유연한 산물도 아니다. 그것은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P III)의 전형적인 현상이다. 대체적으로 서구인들은 십자군 전쟁이 분명히 그리스도 교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Küng, 2013: 562-564).

2) 동로마황제 알렉시우스 콤네노스: For Jerusalem, 아니 For My Throne

비잔틴과 페르시아는 모두 제국들 사이의 완충지대로서 아랍 부족들을 이용해왔고 헤라클리우스는 군대에 대규모 아랍 기병대를 배치해 두고 있었다.((Montefiore, 2012: 292)

거의 40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투쟁을 전개한 끝에 알렉시오스 콤네노스는 마침내 비잔티움 제국의 세력을 상당한 정도로 회복하기에 이르렀다. 이 투쟁은 각 단계마다 콤네노스의 정치인으로서의 위대함과 비할 데 없이 탁월한 외교술을 보여준다. 그는 로베르 기스카르와 베네체아를 반목시키고 차하스와 경쟁상대인 에미르들을 반목시켜서 어부지리를 얻었으며, 페체네그족은 쿠만족의 도움으로 물리쳤고, 투르크인들에 대해서는 십자군 원정대를, 십자군 원정대를 세운 국가들에 대해서는 투르크인들을 이용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외세를 능숙하게 이용함과 동시에 자신의 힘도 점점 더 강력하게 투입할 수 있었다.(Ostrogorsky, 1999: 291).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역사적으로 비잔틴과 인근 무슬림의 관계는 우리는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적대적이지 않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단지 정세(政勢)의 변화에 따라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통한 이합집산(離合集散)의 관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알렉시우스 콤네네가 황제가 되기 전에 반란을 일으켰던 귀족 브리엔니우스의 반란을 진압할 때에도 투르크인 부대를 동원했다는 사실이다. 이노우에 코이치(Inoue Koichi, 井上浩一)의 저서인 『살아남은 로마, 비잔틴제국』(Ikinokotta Teikpku Byzantine)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마침 그때 원군이 도착했다. 투르크인 부대였다. 귀족의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 원수인 투르크인을 고용한 것이 비잔틴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투르크인 용병 대장은 알렉시우스

로부터 전황을 듣고 늦어서는 안 된다며 곧바로 적을 향해 돌진했다. 용맹한 투르크인의 활약으로 결국 니케포루스 브리엔니우스가 사로잡혔다.(Inoue, 2010: 195).

“무엇보다도 비잔티움제국은 끊임없이 그 영역을 잠식해 들어온 이슬람 세력과 수세기 동안 대치하고 있었고, 이슬람 영역으로 넘어간 이베리아와 동방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공동체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다. 이 두 세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절과 순례자, 망명자, 상인들이 있었고, 개중에는 아랍어를 라틴어로 옮길 수 있는 지식인도 없지 않았으며, 심지어 8세기 초에 콘스탄티노플에는 무슬림 방문자나 포로를 위한 모스크가 세워질 정도였다.[Kedar, 1984: 37]”(성백용, 2019: 44-45)³²⁾ 심지어는 무슬림을 용병(傭兵)으로까지 고용하기도 했다. 당시 비잔틴 황제를 머리 아프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비잔틴 귀족들의 반란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지적이다. “소아시아 문제와 관련하여 황제는 투르크족의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전 10년 동안에 이 일대에서 비잔티움 귀족들이 일으킨 반란 때문에 더 골머리를 앓았다.”(Framkopian, 2018: 80).³³⁾ 당시 비잔틴 제국의 정치가 얼마나 불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워런 트레드골드(Warren Treadgold)가 쓴, 『비잔틴 제국의 역사』(A Concise History of Byzantium)의 “6. 부유하면서도 허약한 제국(1025-1204).”(Treadgold, 2003: 256-304)과 게오르크 오스트로고르스키(Georg Ostrogorsky)가 쓴 『비잔티움 제국사 324-1453』(Byzantinische Geschichte 324-1453)의 “5. 수도 관료귀족의 지배(1025-1081)”(Ostrogorsky, 1999: 251-279)을 참조하면 될 것 같다. “소아시아에서 그나마 남아 있던 비잔틴 제국의 지배력은 급속히 약화되었다.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온갖 감언이설로 권력을 찬탈한 황제들이 나타났다가 얼마 되지 않아 권력에서 쫓겨나는 일이 되풀이 되었다.”(Bartlett, 2004: 34). 알렉시우스가 비잔틴 황제로 등극하기 전까지의 비잔틴 제국의 “열세 명의 이류 황제”에 대해서 트레드골드는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Treadgold, 2003: 256-266). 알렉시우스가 비잔틴 황제가 된 후 비잔틴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무슬림과는 거리가 먼 이탈리아 남부의 노르만인들이었다는 지적이다.^{34)·35)}

가장 심각한 위협적인 존재는 아드리아 해를 건너올 준비를 하고 있는 이탈리아 남부의 노르만인들이었다. … 알렉시우스가 즉위하고 나서 몇 달 지났을 때, 노르만의 백작 로베르 기스카르가 군대를 디라키움 인근에 상륙시키고 그 도시를 포위 공격했다. 황제는 거의

32) Kedar, B. Z. (1984). *Crusade and Mission: European Approaches toward the Muslim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33) 그 이유에 대해서 제인 버뱅크와 프레더릭 쿠퍼(Jane Burbank and Frederick Cooper)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로마처럼 콘스탄티노플에도 명확하거나 고정된 제위 계승제가 없었다. 황제의 죽음은 군부의 지위와 민중의 환호를 차지하기 위한 엘리트 파벌들의 경쟁을 뜻했다. 황제는 다른 잠재적 지도자들에 맞서 상당한 세입을 들여 군부의 충성심을 확보해야 했다. 파벌들은 저마다 ‘야만족’ 신병을 모집하려 했다. 비잔티움 황제들 중 일부는 제국의 변방 출신이었고 대개 무용에 힘입어 출세 가도를 달렸다.”(Burbank and Cooper, 2016: 110). Burbank, Jane and Frederick Cooper (2010). *Empires in World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이재만 역 (2006). 『세계제국사: 고대 로마에서 G2시대까지 제국은 어떻게 세계를 상상해왔는가』. 서울: 책과함께. Chapter 3. 로마 이후: 제국, 기독교 이슬람. 100-146.

34) 게오르크 오스트로고르스키(Georg Ostrogorsky)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알렉시우스 1세는 노르만인들과의 투쟁에 전력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로베르 기스카르는 남부 이탈리아에서의 비잔티움 영토를 차지한 후 아드리아 해 동부해안도 공격했기 때문이다. 이 노르만인의 최종 목적은 다름 아닌 비잔티움 황제의 관이었다. 따라서 그의 다음 목표는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길을 자신에게 열어줄 디라키움을 점령하는 것이었다”(Ostrogorsky, 1999: 282).

35)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존 J. 노리치(John Julius Norwich)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술하고 있다. 1. 위기에 등장한 유능한 황제(1081년) 2. 제국을 위협하는 노르만족(1081년-1091년) 3. 십자군의 시대(1091년-1108년).(Norwich, 2008);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비잔티움이 그렇게도 경계했던 노르만족의 지도자 로베르토 기스타르의 맏아들인 타란토 공작 보에몽이 제1차 십자군 지도자로 참전했다는 것이다.(Norwich, 2008: 84-85).

모든 병력을 이끌고 그를 향해 나아갔다. 알렉시우스가 공격하자, 로베르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필라레투스 브라카미우스가 지휘하는 고립된 동부의 타그마를 제외하고는 예전의 비잔틴 군대 중 마지막으로 남은 서부 타그마[중앙군인 *ταγμα*]를 분쇄했다. 황제는 다행히 목숨을 잃지 않고 도주했지만, 노르만인들이 디라키움을 함락시키고 그리스 북부에 산개했다. 알렉시우스는 교회의 금과 은을 전용해 새 용병대를 고용했지만, 노르만인들이 그들을 두 번에 걸쳐 패주시켰다. 알렉시우스는 필사적으로 훨씬 더 많은 투르크 인을 고용하여 한편, 베네치아 이들과 협정을 맺고 노르만 인들과의 싸움에서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관세를 면제해 주고 콘스탄티노플에 상업 지구설치하는 것을 허용해주었다. 다음해에 알렉시우스는 베네치아의 해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투르크 인 용병대를 이끌고 노르만 인들을 제국에서 몰아냈다. 로베르가 1년 뒤에 다시 공격에 나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1085년에 사망하고, 그의 자식들이 군대를 이탈리아로 철수시켰다. 알렉시우스가 끈덕지게 버티며 노르만 인의 완전한 정복으로부터 손상당한 제국을 구해냈던 것이다.(Treadgold, 2003: 267-268)

심지어 만지게르트 전투에서 승리한 셀주크투르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대립을 지니고 있는 것은 비잔티움이 아니라, 시아파인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라는 것이다. 그리고 패전한 비잔틴 황제 디오게네스에게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존 J. 노리치(John J. Norwich)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로마누스 4세 디오게네스가 포로에서 풀려난 뒤에도 계속 바실레오스(basileus)로 남을 수 있었더라면 제국을 안정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셀주크 술탄 알프 아르슬란은 이집트 파티마 칼리프 왕조의 위협을 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으므로 제국과 대규모 분쟁을 빚을 마음은 없었다. 그와 로마누스는 놀랄 만큼 사이가 좋았고, 황제에게 자유를 준 대가로 체결한 조약에서 술탄은 넓은 영토를 요구하지도 않았다.”(Norwich, 2008: 22-23; Norwich, 2007: 290; Frankopan, 2017: 227-228).³⁶⁾

황제가 된 알렉시우스는 과거의 비잔틴 황제와 교황 사이에서 있었던 군사 요청에 대한 역사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 과거 비잔틴의 황제 미카엘 7세와 당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사이에서 군대 동원을 요청하였던 것에 대해서 알렉시우스 황제라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계획은 무위로 끝나고 말았지만 그 사건에 대한 서유럽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보인 긍정적인 반응에 대해서도 황제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황제 알렉시오스는 과거 사례를 따랐던 것이다. “알렉시오스는 우르바누스에게 도움을 호소하면서 전임 황제가 예전 교황과 맺었던 협약을 거의 그대로 따라 했다. 1073년 여름 미카엘 7세 황제는 로마에 소규모 사절단을 보내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동맹을 맺기 바란다는 서명 요청서를 제출했다. … 그레고리우스 7세는 콘스탄티노플을 방어하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한다는 아이디어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황은 모든 기독교인의 옹호자로 자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베르 기스카르와 노르만인을 격퇴하는 데 지원을

36) “셀주크투르크족은 최근에 개종한 열렬한 신도들인 테다 수니파의 정통 무슬림들이었으므로 갑자기 크게 성장한 시아파 세력을 혐오했다. 그들에게 시아파는 입에 담기도 싫은 이단이었을 뿐 아니라-카이로에 반대파의 칼리프 왕조를 세웠으므로-이슬람의 근본적 통일을 저해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파티마 왕조가 궁극적으로 바그다드를 점령하려 할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러기 전에 적을 격파해야 한다고 결심했다.”(Norwich, 2007: 290).: “사실 셀주크인들과 바그다드의 정권은 동로마제국을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고, 그보다는 이집트의 시아파 파티마 칼리프 정권을 더 우려했다. 두 세력은 급세 싸움이 붙었고, 예루살렘의 통제권을 둘러싸고 격투를 벌였다”(Frankopan, 2017: 227-228).

할 수 있는 것이었다. … 그러나 실제로 그레고리우스의 계획은 무위로 끝났다. 이것은 무관심의 결과가 아니었다. 교황의 강력한 메시지는 서방의 일부 지도자들을 크게 감동시켰다.”(Frankopan, 2018: 157-159). 개인적으로 알렉시우스 황제 자신도 그러한 요청을 한 경험이 있었으며 또 그러한 군사적 요청으로 서유럽의 기사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내기도 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알렉시오스는 1088년 프랑드르 백작의 기사 500명을 용병으로 얻어 요기한 도움을 받은 경험한 적도 있었다(Herrin, 2010: 492).

알렉시오스는 이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두었던 성공 사례에서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 가령 1090년대 초 니코메디아가 아불-카심 수중에 떨어졌을 때,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 그가 사방에 보낸 서신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서방 기사들이 ‘하느님의 도움으로’ 투르크인들을 몰아내기 위해 그에게 달려왔던 것이다.(Frankopan, 2018: 155).

당시 서유럽은 신앙심을 과시하는 문화가 지배했다고 한다. 그것이 황제 알락세오스의 개인적 야망과 일치할 수 있었던 환경으로 작용한 것이다. “11세기 귀족 문화는 신앙심을 과시하는 문화였다. 귀족들은 전쟁터에서의 실력 못지않게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름을 떨쳤다. 실제로 이 두 가지는 어느 한쪽도 없어서는 안 되는, 동전의 양면이었다. 이들 가문들은 이미 수세기 동안 유럽의 교회와 수도원에 토지와 부를 아낌없이 기증해왔다. 귀족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으므로, 그 은총의 결실을 하느님의 백성과 교회에 되돌려주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 그리고 십자군 원정은 그런 의무를 수행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다.”(Madden, 2010: 45). 알렉시오스 비잔틴 황제는 서방인들이 종교[신앙]에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그는 서방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촉매제로 신앙을 이용하기도 했었다. “알렉시오스는 서방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촉매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또한 성 유물에 대한 서방의 점점 높아지는 관심도 적절히 활용했다. 서방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된 물품들은 아무리 사소하고 또 그럴 법하지 않더라도(가령 그의 젖니와 그가 어린아이였을 때 씹었다는 빵 등) 엄청난 정신적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었다.³⁷⁾ 황제는 제1차 십자군 전야의 몇 년 동안에 이런 성물 욕구를 적극 활용했다.”³⁸⁾(Frankopan, 2018: 151).

비잔틴 황제가 그러한 결정을 한 것에는 당시 레반트 지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11세기 아랍 중심(칼리프, 또는 할리파 Khalifa)의 동질성이 무너지고 없었다고 한다. 이방인에 불과한 투르크족 용병들이 실질적으로 레반트 지역을 지배했으며 이들은 하나의 통일체를 갖지 못한 채 갈등과 분열로 혼재된 상황이었다. 그

37) Guibert of Nogent (1993). *De pigneribus sanctorum*. ed. R. Huygens. Turnhout. 1:98. 88.

38) 성물을 이용한 또 다른 예로는 다음과 같다. 알렉시우스는 로베르토 기스카르[아폴리아 공작]가 두라초를 함락하고 콘스탄티노플에 가까이 왔을 때 하인리히 4세와 동맹을 맺고 하인리히 4세로 하여금 로마로 진군하게 하였다. 그 소식을 접한 로베르토는 아들 보에몽에게 군사를 맡기고 이탈리아로 떠나게 하였다(1082년). 당시 알렉시우스가 하인리히 4세에게 동맹의 대가로 지불한 것으로는 금괴 36만 개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유품이 작은 꼬리표로 분류되어 담긴 금갑 성물함’도 있었다고 한다.(Norwich, 2008: 56-67 참조). 이 사건으로 인해 알렉시우스와 하인리히 4세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로부터 파문을 당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동방제국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알렉시우스의 파문이 더 큰 화제였다고 한다(남경태, in Norwich, 2008: 71 역주)

러한 국제 정세를 인지한 알렉시오스 비잔틴 황제는 남의 힘[서방기독교와 교황]을 빌려서라고 잃어버린 과거 비잔틴 영토를 되찾고 싶었던 것이다(서미석, in Bartlett, 2004: 515-516, 서미석, “오킨이의 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전쟁의 역사”. 515-519 참조). 그래서 그는 과거 군사 원조를 요청했을 때 서방 기독교사회가 보였던 반응을 알고[經驗] 있었기에 서방으로부터 군사적 원조를 받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자극할 수 있는 극단적인 가짜 정보를 통해서 서방 기독교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군사 원조를 요청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꾸민[誇張한] 이야기가 황제 자신도 생각지 못한 극단적인 최악의 결과를 야기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었다는 점이다. “기독교도들은 성지 예루살렘이 무슬림들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무력 원조를 요청한 것은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알렉시오스 1세 콤네누스(Alexius I Comnenus, 1081-1181)였는데, 그것은 아나톨리아에서 경쟁하고 있던 셀주크조에 대항하기 위해서였다. 황제는 성지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꾸며 기독교인들의 연대감을 불러일으켰다.”(최성권, 2012: 250). “만지케르트 전투[1701년 반 Van 호수 북서쪽 Manzikert, 터키명으로는 Malazird] 직후 서유럽에서는 교황 그레고리우스(Gregory) 7세가 비잔틴 제국을 돕기 위해 임시 조치를 취했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알렉시오스는 그 생각을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그에 따라, 1095년 당시 교황이던 우르바누스 2세(Urban II, 1088-1099 재임)에게 보내는 편지가 한 통 작성되었다. 알렉시오스는 ‘이교도들에게 맞서 성스러운 교회를 수호할 수 있게 원군을 보내다라’고 교황 성하와 모든 충실한 그리스도교 인들에게 겸손하게 청했다. 그리고 ‘이들 이방인들은 … 콘스탄티노플 성벽에 이르는 모든 땅들을 거의 점령하였다’라고 덧붙였다.”(Bartlett, 2004: 37). 그런데 문제는 어마어마한 수의 대군이 도착했다는 것이다. 황제는 과거에 경험했던 것처럼 아마 용병 정도의 병력 지원을 바랬었을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유럽에서 건너 온 병력은 자신의 제국을 위협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규모가 매우 컸다는 점이다. 그 많은 수의 병력을 보는 순간 알렉시오스 황제는 자신의 제국의 생존에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존 J. 노리치(John Julius Norwich)의 말마따나 “그에게[비잔틴 황제]는 용병이 필요했지, 십자군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Norwich, 2008: 76; 박찬승, 2017: 156 참조. [] 본연구자 첨가).³⁹⁾

그렇지만 1095년에 황제는 자신이 교황 우르반 2세에게 용병대를 보내 달라고 간청한 것에 고무 받아 교황이 동방의 그리스도 교도들을 투르크인들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군

39) 조르주 타트(Georges Tate)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그는 교황에게 군사 원조를 요청한다. 그의 본의는 분명하다. 그는 용병을 요청한 것이지, 서유럽 군대의 개입을 요청한 것이다.”(Tate, 1999: 26); 리처드 플레처(Richard Fletcher)도 비슷한 기술을 하고 있다. “외국인 용병 부대를 고용하는 일은 태곳적부터 이어져 내려온 로마-비잔티움 제국의 오랜 정책이었다. 이런 용병은 나뭇의 지휘자를 갖춘 채 단기 계약으로 활동하는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칸디나비아와 잉글랜드에서 모집된 그 유명한 바랑기안 친위대(Varangian Guard)처럼 제국 당국이 직접 지휘하는 항구적 분견대의 형태일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1095년 교황 우르바누스 2세(Urbanus II, 재위 1088-1099)에게 사절단을 보내 공개적으로 군사적 원조를 요청한 황제 알렉시오스 1세(Alexios Komnenos, 재위 1081-1118)의 조치는 결코 새로운 일도, 특이한 일도 아니었다. 그가 기대한 것은 비잔티움 장수의 지휘 아래 통제될 수 있을 만큼 규모의 적당하면서, 세밀한 군사 임무에 배치되는 데 필요한 무장과 훈련까지 갖춘 전사 집단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등장한 것은 열성적이기는 하나 훈련이라고는 거의 받지 못한 거대한 오합지졸이었다.”(Fletcher, 2020: 131-132).

을 소집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유럽 전역에서 끌어모아 명백히 숫자상으로 비잔틴의 전 병력을 압도하는 이 제1차 십자군 원정의 병사들이 콘스탄티노플 앞에 집결한 뒤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되어 있었다. 교황은 십자군 전사들로 하여금 비잔틴 인들을 돕게 할 의도였지만, 알렉시우스에게는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되찾기보다는 비잔티움을 정복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였다. 이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기민하기 짝 없는 황제는 자신이 약한 동안은 강력한 십자군을 적대시할 수 없었다.(Treadgold, 2003: 269; Herrins, 2010: 492 참조).

3) 이슬람의 세력 다툼: Allahu Akbar 아니, Sultan[Emir/Wazir/Mamluk] is Greater!

미안한 소리지만 개인적으로 십자군 전쟁의 원인들 중에 그 비중이 큰 것부터 나열하자면, 첫 번째는 비잔틴 황제인 알렉시우스 콤네누스 1세의 정치적 욕망이고, 그 다음엔 조작된 그 동로마제국의 황제의 말[東羅馬皇帝要請]을 곧이 그대로 믿고(아니 믿어야 했던, 왜냐하면 우르바누스 자신도 그와 비슷한 정치적 야망이 있었기에, 단지 밖으로 그것을 그전에 표출하지 않았을 뿐) 십자군을 일으킨 교황 우르바누스 2세다[政治的野望+ 뺨튀기에 또 다른 뺨튀기]. 그런 후 세 번째로 뽑자면 바로 이슬람 세력 확장(셀주크 투르크) 지적하고 싶다.⁴⁰⁾ 그렇지만 세 번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원인과 두 번째 원인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당시 레반트(Levant) 지역은 한 마디로 군웅할거(群雄割據)의 무대였다. 분열과 경쟁이 난무하는 곳이 바로 레반트 지역이었다. 당시 레반트 지역의 배경에 대해서 최성권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8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11세기까지 이슬람 국가와 사회는 많은 내적 약화의 징후를 나타냈다. 제국은 독립적인 수많은 지방군주국으로 분열되었고, 이슬람 국가의 실제적인 권력은 군대를 배경으로 통치하는 군부 독재자들에게 넘어갔으며, 압바시아 할리파의 권력과 권위는 바그다드 주변에서조차 약화되었다. 비잔티움 제국과 이란의 사산 왕조로부터 물려받은 기초 위에서 이슬람 제국이 정성들여 수립한 모든 정치적·행정적 구조는 붕괴되었다. 그리고 수니파 이슬람의 수장으로서의 할리파[Khalifa]의 종교적 지위는 밑바닥으로 추락했다. … 이처럼 지방에서 중앙에 이르기까지 제국적 권위의 새로운 체제가 등장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정치적·군사적 업무에서 대부분의 권위를 빼앗긴 할리파의 위상변화와도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서남아시아 전역에 대한 셀주크 제국의 확립과 소위 ‘대술탄제’(Great Sultanate)의 창설로 11세기 중반에 완성되었다.”⁴¹⁾(최성권, 2012: 231-233). 셀주크 투르크(Seljuk Truk)가

40) 참고로 타미 안사리(Tamim Ansary)는 투르크 족의 이슬람 색채(色彩)를 다음과 같이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셀주크는 점점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바그다드에 수도를 둔 아바스 제국을 잠식해 갔다. … 그들은 국경을 넘어온 뒤에 본래의 사머니즘을 버리고 이슬람으로 개종했지만, 그들의 신앙이란 교리나 윤리 따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임시변통의 이슬람이었으며 운동선수들이 대기실에서 외치는 구호처럼 우리 편, 저 편을 가르는 사상이었을 뿐이다.”(Ansary, 2011: 214) 참고로 한국어판 책의 216 페이지의 지도 밑에는 ‘셀주크 제국: 튀르크인의 이슬람 세계침략’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Ansary, 2011: 216 지도 참조). 물론 이슬람화가 되기 전이기에 이러한 제목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사토브리앙(Francois-Rene de Chateaubriand)은 “십자군은 침략군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곧 십자군은 오마르 [Omar, (?-622 2대 칼리프)] 세력이 유럽에 미친 바에 대한 기독교 측의 반격에 불과했다는 것이었다.”(Said, 2012: 302).

41) “사실 아나톨리아의 사정은 만지케르트 이후 어느 때보다도 좋았다. 셀주크의 룸 술탄국은 거의 해체된 상태였고, 각지의 아미르들은 단합해서 제국을 상대하기보다는 자기들끼리 극심한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그 가운데는 비잔티움의 앞잡이들이 선동한 경우가 많았다)”(Norwich, 2008: 72).

강성해져서 레반트 지역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시기였다. 시간의 흐름의 순서에 따라서 룸 셀주크(Rum Seljuk), 장기 왕조(Zangid Dynasty), 장기의 아들 누르 알 딘 휘하의 유능한 쿠르드(Kurd) 족 출신의 장수였던 쉬르크(Shirkuh)의 뒤를 계승한 그의 조카인 살라딘(Saladin, Salah al-Din Yusub ibn Ayyub, 1138-1193)의 아유브조(Ayyub Dynasty)가 등장하였던 것이다. 그 후로도 노예 출신인 맘루크(Mamluk)와 몽골족이 침입이 계속으로 무력 다툼이 지속된 곳이 바로 레반트 지역이었다. 최성권 교수는 이슬람 세력의 확장이 당시 성지순례에 어려움을 가져왔고 그로 인한 십자군이 발흥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또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번의 경우 십자군 원정이 필요한 이유로 내세운 것 중 하나는 셀주크조는 1071년에 만지케르트에서 비잔티움 군을 제압하여 에게 해와 시리아 해안뿐 아니라 소아시아 반도의 동부와 중앙부를 장악하면서 기독교도들의 예루살렘 순례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었다. 당시 이 지역을 지배하던 이스마일파의 파티마조[이들의 시아파의 한 분파다]는 영토인 이집트와 시리아의 주민이 대부분 수니파였고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기독교도들을 비교적 온건하게 다루었으므로 기독교도들의 예루살렘 순례에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1071년에 셀주크조가 파티마조에게서 예루살렘을 빼앗을 후에 기독교도의 성지 순례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었다 해도 십자군이 팔레스타인에 도착했을 때는 예루살렘이 다시 파티마조에 넘어간(1098) 뒤였다. 그러나 유럽의 지배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최성권, 2012: 250-251)

셀주크 투르크 족으로 대표되는 이슬람 세력의 확장이 성지 순례에 어려움을 주었던 것 또한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 십자군 전쟁을 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비중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러한 위험들은 그 지역에 상존(常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지를 순례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여행의 과정이었으며, 예루살렘을 놓고 심지어 이슬람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인 경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최성권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제1차 십자군 부대가 예루살렘을 1099년에 함락시켰을 때에, 불과 얼마 전에 이슬람의 시아파인 파티마조 이집트인들이 수니파인 투르크인들에게서 예루살렘을 빼앗았기 때문에-물론 그 이전에는 투르크가 빼앗았다-예루살렘에 대한 십자군의 공격이 있을 때에도 이집트의 무슬림들이 같은 이슬람인 투르크인들에게 정식 군사 지원을 요청할 수 없었을 정도였다고 하니 이들의 관계가 어떤 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Bartlett, 2004: 169). 과거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알프 아르슬란이 당시 동로마황제 디오게네스 풀어준 이유도 다름 아닌 당시 같은 이슬람인 파미타조[시아파]에 대한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비잔틴과의 전쟁으로 자신의 그러한 목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한다.(Tate, 1999: 19-20). 아민 말루프(Amin Maalouf)는 안티오케이아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다. 제1차 십자군이 안티오케이아로 진격했을 때 안티오케이아의 야기 사얀(Yaghi-Siyan)이 다마스쿠스의 왕 두카크(Duqaq)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두카크는 원조에 응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고 한다. 왜냐하면 당시 시리아는 내전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었다. 형인 알레포의 왕인 리드완(Ridwan)과 동생인 다마스쿠스의 왕 두카크가 내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십자군의 안티오케이아의 침략은 2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당시 상대가 더 경계해야 할 적은 십자군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형과 동생의 군대였던 것이다.

프랑크 군대가 안티오케이아로 진격해 올 즈음 야기 시안은 다마스쿠스로 눈을 돌린 것이다. 그러나 두카크[Duqaq]는 머뭇거렸다. 그가 두려웠던 것은 프랑크인들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알레포 쪽으로 보냈다가 형에게 자신의 배후를 칠 빌미를 제공하고 싶지 않았다(Maalouf, 2002: 50).

4) 귀족 및 그 외: Deus de Volt! 아니 For each your Benefits

기독교인의 고통, 정신적 보상,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 등을 한데 뒤섞은 수사적 각테일은 사람들을 도취시켰다(Frankopan, 2018: 170).

당시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내세운 십자군 원정에 대한 종교적 수사(宗敎的修辭)가 당시 사람들에게 쉽게 먹혀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교황 우르바누스의 연설에 대해서 그 당시 청중들은 쉽게 “이것이 신의 뜻이다”라며 화답(和答)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당시 귀족들과 민중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십자군(People crusade)이 되어서 위험천만한 레반트 지역으로 진군했을까?(Ansary, 2011: 227-229 참조) 당시 서유럽에는 밀레니엄 사상이 팽배해 있었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천년과 함께 새로운 시작되리라는 기대 말이다. 제임스 캐럴(James Carroll)이 언급한 ‘예루살렘 열병’도 당시에 한 몫했을 것이다. “지상의 예루살렘이라는 화면 위에 천년왕국에 대한 강렬한 환상을 투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역사가 완성되리라는 신념이 바로 예루살렘 열병이다. 이러한 역사의 결말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거나 재림하거나 혹은 아마겟돈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천사들이 사탄의 무리(그리스도교 인들이 대개 유대인, 무슬림, 그 밖의 ‘이교도’를 지칭하는 표현)를 무찌르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진다.”(Carroll, 2014: 12). 중세의 신학자들이 세상의 종말 처(處)로 설정한 곳은 바로 ‘세계의 중심’인 예루살렘이었다고 한다(Tate, 1999: 32 ‘본문 옆 설명글’). “말세에는 천상의 예루살렘은 지상의 예루살렘 바로 그 자리에 내려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지에서 죽는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 날에 그리스도 곁에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Tate, 1999: 31-32.; 彌永信美, 2019: 177 참조⁴²⁾) 프랭크판의 책을 번역한 이종인 선생은 “오킨이의 말”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42) 이어나가 노부미(彌永信美, IYANAGA Nobumi)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제1차 십자군의 원인을 종말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민중 십자군’에 관한 한 그것이 커다란 기폭제가 되었던 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1099년 7월 15-16일에 벌어졌던 예루살렘 성내에서의 대학살이라는 바로 종말의 날 광경을 재현해 낸 것이었다. 그 속에서 흡사 적그리스도 군대처럼 피의 바다에서 환희의 절규를 내지르며 광분했던 것은 ‘신의 가난한 자들’, ‘그리스도의 군대’ 바로 그것이었다.”(彌永信美, 2019: 177)

서기 1000년대는 유럽 중세의 한 가운데 시점으로 두 가지 중대한 흐름이 있었다. 하나는 이슬람 세력과의 대립이고 다른 하나는 밀레니엄 사상이다. 이 무렵 유럽 북방의 야만인들은 거의 제압이 되었고 폴란드, 헝가리,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기독교화되기 시작했다. 100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유럽 남부의 이슬람 세력은 압바시아 칼리프 왕조의 쇠락으로 후퇴하고 있었다. 노르만인은 약진하여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를 아랍인의 손에서 빼앗아냈다. 그러나 이슬람과의 대결은 15세기까지 지속되어 일진일퇴의 호각지세를 구축했다. 1453년에 비잔티움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제국의 메흐메트 2세에게 함락되었고 서방은 1492년에 이슬람 세력을 스페인에서 완전히 몰아냈다. 한편 11세기에는 밀레니엄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중세 사람들은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었다. 기독교 신자들은 하느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한 점에 착안하여, 우주의 지속 기간은 단계마다 1000년의 시간대를 가진 여섯 단계로 나뉜다고 보았다.(334-335) 시편 90장 4절에서 지상의 1000년은 하느님에게는 1일과 같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 6000년(하느님의 옛새)이 다 지나가고 가면 세상을 지배하던 대악마는 지하 토굴에 갇히고, 새로운 1000년(밀레니엄)이 도래하면 재림한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되고 이어 최후의 심판이 닥쳐온다고 믿었다(계20장) 천치장조의 시기는 기원전 5200년경이라고 추정되어 여섯 번째 단계는 서기 800년 전후에 끝나는 것으로 믿어졌으나, 그 시기가 지나가자 중세 사람들은 서기 1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다시 밀레니엄이 시작되리라고 대망했다. 십자군 전쟁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나온 중세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교황이 원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죄의 사면이라는 정신적 보상을 약속하면서 밀레니엄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져 십자군 지원자들을 분기시켰다. “하느님이 원하신다!”라는 십자군의 구호는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이종인, in Frankopan, 2018: 335, 이종인, “옴긴이의 말”. 334-338 참조).⁴³⁾

새 천년에 대한 기대감과 사회적 분위기는 우르바누스 2세의 종교적 수사와 함께 합해져서 민중들의 마음속에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W. A. 바틀릿(W. A. Bartlett)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신에 의해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견해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무섭도록 실재적인 것이었다.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그 당시가 1000년 대였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후 1000 주년이 가까워오고 있었으므로 세상이 곧 끝나게 되리라는 공포였다. 이러한 세기 말의 징후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던 천벌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낸 것이었지만 우리는 이로 인해 당시의 시대를 아주 유용하게 간파할 수 있다.”(Bartlett, 2004: 51)

당시 귀족(貴族)들의 십자군 참여는 영지(領土)의 확장과의 관계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귀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레반트 지역에 정착하면서 자신들의 영지를 획득했었고, 거기에 영구적으로 주둔하면서 지배권을 확보함을 통해서 그들이 전쟁에 참여한 의도가 무엇이었던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⁴⁴⁾ 중세 봉건사회가 정착되면서 장자(長子) 이외의 아들들은 봉토를 물려받았을 수

43) “새로운 천년기(千年紀)가 시작된 11세기 초에는 성경에서 말한 [천년왕국]에 대한 대망마저 다시 부활하고 있었다.”(“군중십자군” <위키백과> 참조)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아들들은 스스로 자신의 앞길을 개척할 수밖에 없었다고 것이다.⁴⁵⁾ 이는 끝날 수 없는 잦은 무력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윌리엄 A. 펠츠(William A. Pelz)는 이에 대해서 직선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귀족들은 명예문제 때문에 싸운다고 했지만, 실제 핵심은 영지 확장 시도였다.”(Pelz, 2018: 35).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클레르몽 공의회(Council of Clermont)에서의 십자군 원정에 관한 자극적인 연설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봉토의 개척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희망이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세 지역의 기사군들이 레몽[톨르즈 백작]과 합류하기 위해 당도했다. 먼저 고드프루아 드 부용이 이끄는 프랑드르와 로트링겐 저지 라인강 연안 지방의 기사들, 그리고 프랑스 왕 필리프 1세의 동생인 위그 드 베르망두아가 지휘하는 일드프랑스와 샹파뉴의 영주들, 마지막으로 보에몽과 그의 조카 탕그레드 휘하의 남부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섬의 노르만인이 온 것이다. 이 기사군들은 어떤 왕국에도 소속되지 않았다. 이 지휘관들은 죄를 사면 받으려는 열망 이상으로 오리엔트에 가서 자신들의 군주가 될 고국을 정복하겠다는 꿈을 꾸었다.(Tate, 1999: 36)

십자군이 동로마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후에 어떻게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가 분할되었는지 보면 봉토개척의 꿈에 대한 실현된 현실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라틴 제국의 황제로서 보두앵은 제국 전체 영토의 4분의 1일 얻기로 되어 있었다. 나머지 4분의 3가운데 절반은 베네치아 인들에게 귀속되고, 그 밖의 절반은 황제의 봉토로서 기사들 사이에서 분배되기로 정해졌다.”(Ostrogorsky, 1999: 339-340)

그렇다면 농민들과 같은 일반 대중들은 무엇 때문에 십자군에 참가하였을까?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던 이들에게 새로운 밀레니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십자군 전쟁에 참가를 통해 모든 죄를 사면(赦免)을 준다고 한다.⁴⁶⁾ 그리고 십자군 원정의 모든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에 있으나 저기에 있으나 힘겹게 사는 것은 매 한 가지, 여기서 굶으나 거기서 굶으나 굶어죽은 것은 매 한 가지,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인데 사면과 같은 조건들이 매우 유리한 조건들이었던 것이다. 전쟁은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평화 시에는 금지되었던 행위도 가능하게 한다. 전쟁 상황에서 약탈은 노획물(鹵獲物, spoils)의 획득이 될 수 있고, 살인은 정당방어를 떠나 영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전장(戰場)이다. 그렇

44)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십자군이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생각을 수용하고, 그것에 이상주의가 작용했다는 생각을 부인했다. 대신 그들은 십자군이 중세 유럽에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원이 부족하게 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십자군은 해외에서 새로운 영토를 찾는 잉여 노동력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제국주의를 점점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경향과 일치했다. 마르크스주의를 따르지 않는 역사학자들조차도 십자군이 탐욕의 결과였다는 전제를 받아들였다. 제국주의 전쟁으로서는 명백히 착취의 전쟁이었기 때문이다.”(Madden, 2010: 355).

45) “[로렌의 공작인 부용의 고드프루아의 동생인 블로뉴의] 보두앵은 장남이 아니라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채 아내와 아이들까지 거느리고 와 동방에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Norwich, 2008: 82)

46) “십자군의 가장 강력한 유발 동기 중 하나가 바로 면죄를 약속한 것이었다.”(Crowley, 2012: 62)

다면 밀져야 본전이지 않겠는가? 마이클 하워드(Michael Howard)의 전쟁법과 관련된 기술에서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물론 하워드가 기술하고 있는 시기는 십자군전쟁과는 거리가 먼 중세 후기(the Late Middle Ages)이기에 적용에 있어 제한이 따르겠지만 말이다. 전쟁에 참여한 일반 대중들은 대사(大赦)와 더불어 아마 전쟁이 그들에게 주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법의 성문화가 가속화된 것은 사실 기독교나 법 혹은 기사도적 양심의 추구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발전 과정인 전쟁의 상업화에 따른 것이었다.[Keen, 1965: 154 이하 참조] 몸값과 노획물을 더 이상 유쾌한 보상이 아니라 전쟁의 주된 목적으로 여기는 이들의 수가 늘어났다. 입대한 이들에게 주어진 급료는 언제나 매우 적었지만, 출정에 따른 이익은 엄청난 부를 가져다줄 수도 있었다. 따라서 만약 전쟁의 수행과 평화 협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어떠한 노획물들을 언제 취할 수 있는지, 그 노획물들은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몸값을 부를 수 있는지, 또한 누가 이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중세 말 사람들은 전쟁으로 이끌었던 동인 중 하나는 묵묵히 명령을 따른 수고, 용기로 맞선 위험,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참고 견딘 고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봉건제의 엄밀한 구성에 따른다고 해도 전쟁은 사회의 모든 계급에 걸쳐 돈[금전과 그 외의 이익]이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었다.”(Howard, 2015: 27-28)⁴⁷⁾

[파이리시(독일의 수도원)의] 권터는 [제4차 십자군에 대한 글에서] 이렇게 썼다. “산처럼 쌓인 금은보화, 찬란한 보석과 의류, 값나가는 교역품, 넘치는 식료품, 온갖 종류의 물건이 가득 들어찬 아름다운 가옥들로 (...) [십자군]은 가난뱅이 외국인 신세에서 졸지에 벼락부자가 되었다.”(Herrin, 2010: 506).⁴⁸⁾⁴⁹⁾

3 십자군 전쟁의 참여 동기의 다양성이 주는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십자군 전쟁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렇다면 오늘날 십자군 전쟁을 이슬람과 기독교 양(兩)종교 간의 극단적 대립으로 이해하는 이들에게 십자군 전쟁의 원인의 다양성[參與動機]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하는 점이다.

47) Keen, N. H. (1965). *The Laws of War in the Late Middle Ages*. London.

48) 전쟁과 관련해서 이슬람 측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1422년 콘스탄티노플을 포위 공격한 무라드 2세도 그 점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정복을 빼어놓은 대상으로 여기며 약탈에 대한 훈령 까지 내려놓았다. 공방전의 한 목격자는 이렇게 썼다. ‘투르크족 군주는 땅의 모든 끝까지 전령을 보내 콘스탄티노플의 부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죄다 무슬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약속을 하도록 했다. 무슬림들을 그러모으기 위해서였다. (...) 그 말을 듣고 한탕주의자, 모험가, 상인, 항수제조자, 제화업자, 심지어 투르크 수도승까지도,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인간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었다. (...) 포로와 여자를 원하는 자, 남자를 원하는 자, 소아를 원하는 자, 동물을 원하는 자, 물건을 원하는 자, 모어든 목적도 가지가지였다. 투르크족 수도승은 기독교 수녀와 공짜 전리품을 원했다’”(Herrin, 2010: 590).

49) 참고로 베네치아의 도제(Doge, [도제라는 직함은 비잔티움 제국의 지배하에 있을 당시 황제가 수여한 달마티아 공작 열 Dalmatiae에서 유래한다] 단돌로(Enrico Dandolo)가 주도한 “제4차 십자군의 경우 실제로 베네치아가 십자군과 함께 비잔티움 제국을 점령하고 제국의 8분의 3이라는 방대한 영토를 획득했다”(남종국, 2018: 316; Madden, 2003: 196; O’connell, 2009: 17 참조). “어쨌든 4차 십자군 이후 베네치아 도제는 로마제국의 8분의 3의 지배자(Dominator quartae partis et domidae totius imperii Romaniae)라는 제국 칭호를 획득했다.”(남종국, 2018: 337). Madden, Thomas F. (2003). *Enrico Dandolo and the Rise of Venic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O’connell, Monique (2009). *Men of Empire: Power and negotiation in Venice’s maritime stat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 먼저 종교적 요인은 십자군 전쟁의 극히 작은 일부분이며 단지 종교적 수사에 불과함

물론 종교는 그런 갈등의 한 가지 요인일 뿐이다. 대개는 정치나 경제에 갈등의 원인이 있다. 그러나 종교는 편을 가르는 단층선이다.(Sacks, 2007: 22).⁵⁰⁾

동쪽의 투르크에 대해서는 로마 교황을 통해서 서유럽에 원군을 요청했다. 그런데 나타난 것은 예상을 초월한 대군이었다. 게다가 그 원군은 자기들 나름의 독자적인 전쟁 목표를 갖고 있었다. 원군은 성지의 해방을 목표로 삼은 십자군이었다. 알렉시우스는 십자군을 이용해서 투르크로부터 영토를 단환하려고 했지만 끝까지 싸워 투르크를 굴복시킬 생각은 없었다. 십자군이 성지를 탈환하는 것은 그들의 사정이고 적당한 수준에서 손을 털고 투르크인과 화해를 할 생각이었다. 이 점에서도 그는 제국의 현상을 정확하게 바라볼 줄 아는 현실주의자였다. 오랫동안 이민족·이교도를 겪은 비잔틴 사람들은 ‘성전’이라는 관념이 희박했다.(Inoue, 2010: 202)

십자군 전쟁에서 종교적 요인은 지극히 적은 일부분에 속한다. 단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에 의해서 침소봉대(針小棒大)된 것에 불과하다. 비록 종교적인 냄새를 풍기는 십자군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 종교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당시 평범한 전쟁에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단지 비잔틴 황제가 레반트 지역의 분열의 정세를 읽고 비잔틴 제국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서유럽인들의 신앙을 이용 한 것에서 시작된 사건에 불과하다[信心을 惡用한 戰爭]. 무엇보다도 비잔틴의 알렉시우스 황제의 정치적 야망이 도화선이 된 사건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한 십자군 전쟁의 실질적인 전개 과정을 무시한 채, 섹스(Jonathan Sacks)가 자신의 책, 『차이의 존중: 문명의 충돌을 넘어서』(Dignity of Difference)에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에 의해서 종교를 단지 갈등에서 편을 가르는 단층선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종교가 지니고 있는 본질과 거리가 먼 사건을 정치적으로 종교화[政治的宗教化]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다른 제 요인들을 무시한 가운데, 그들 제 요인들의 중요성을 간과한 가운데 “십자군 전쟁=이슬람과 기독교의 충돌의 역사”의 도식으로 극단적으로 환원시킨 것에 불과하다. 이는 종교와는 거리가 본질적으로 먼 일종의 종교의 정치화의 한 유형[事例]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역사적인 충돌에서 종교는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 그 자체가 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전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십자군 전쟁은 단지 그 당시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의 하나에 불과한 전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안 아몬드(Ian Almond)도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분쟁이라고 말하는 무력충돌에서 이슬람과 기독교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애매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50) 브루스 링컨(Bruce Lincoln)은 “빈 라덴과 부시 대통령의 연설문, 테러범들의 지령문과 편지,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의 발언, 언론 기사 등에 대한 치밀한 담론분석을 통해 빈 라덴과 부시 정권의 대립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단지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종교적 대립만이 아님을 밝혀줍니다. 거기에는 종교, 정치, 문화, 경제, 사회의 온갖 요소들이 근대적 욕망과 뗄 수 없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종교적 요소는 실질적으로 중요해져라기보다는 대중 동원의 정치적 수사 차원에서 도드라지게 만들어지는 것”의 결과임을 지적하기도 합니다.(김윤성, in 신재식·김윤성·장대익 공저, 2009: 304-306)

“투르크군의 절반이 기독교도였고, 비잔티움 제국 군대의 절반이 투르크 용병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당시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새로운 방식도 함께 찾아야 한다.”(Almond, 2010: 149).⁵¹⁾

십자군 전쟁의 서방측 구호였던 신이 원하신다!(God wills It!)나, 이슬람 측의 구호였던 알라는 위대하시다!(Allahu Akbar!)를 들은 그들의 절대자인 알라(Allah)나 여호와(the God, YHWH, יהוה)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마도 그들 절대자들은 자신들의 귀를 막으시고 스스로 눈을 감으셨을 것이다. 자신들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어리석고 가혹하고 잔악한 이들의 행동을 안 보시고 들으시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절대자는 평화이시다.(God wills Shalom. Allah wills Sala[a]m). 그래서 절대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잘못된 종교적 행위는 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단순한 종교적인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타미민 안사리(Tamim Ansary)도 자신의 책, 『이슬람 눈으로 본 세계사』(Destiny Disrupted)에서 당시 무슬림들도 십자군의 정치적 종교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이해했었기 때문에 이들 전쟁을 ‘프랑코 전쟁’(Franj Wars)라고 불렀다고 지적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십자군의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동기를 이해한 뒤로 ‘알 룸’(로마, 즉 비잔티움)과 ‘알 이프랑코’를 구별했다. 그들은 그 폭력의 시기를 ‘십자군 전쟁’이 아니라, ‘프랑코 전쟁’이라고 불렀다.”(Ansary, 2011: 247)⁵²⁾.⁵³⁾

참고로 러셀 야코비(Russell Jacoby)의 책, 『친밀한 살인자: 이웃 살인의 역사로 본 폭력의 뿌리』(Bloodlust: On the Roots violence from Cain and Abel to the present)을 보면, 16세기에는 기독교의 이교도가 터키인(Turkish, ‘이슬람을 상징하는 말)들보다 사악하다는 말이 신교(프로테스탄트)에서뿐만 아니라 구교(가톨릭)에서 나오고 있음을 지적한다. 당시 기독교 내의 신교와 구교 사이에서 더 강한 폭력들이 행사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기독교의 이교도가 터키인보다 사악하다’는 문장은 16세기 내내 끊임없이 출현했다. 기독교의 논법(polemics)이 암시하는 사항은 구교도(나 신교도)의 폭력이 터키인의 폭력을 능가하며 기독교도의 이교도가 이슬람교도보다 위험하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로마는 터키인보다 사악하다’라는 의견을 루터는 피력했다. 교황청(Vatican)도 기독교의 이교도가 이슬람교도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현재 우리는 극악한 마르틴 루터뿐만 아니라 터키인들과 일전을 준비하고 있

51) “안티오코스 3세가 처음으로 팔레스타인을 침공했을 때, ‘아라비아 주민들’은 곧바로 라피아(Raphia)에서 그의 편이 되어 싸웠다[Polyb. 5.71; 1, 4.]”(Hengel, 2012: 159-160).

52) “알리 이븐 알자시르 같은 중세 무슬림 역사가들은 십자군을 ‘프랑크 전쟁’(Frankish Wars, 후랍 알파랑가)이라고 불렀다.”(“십자군” <위키백과> 참조)

53) 사카키바라 에이스케(榑原英資, Sakakibara Eisuke)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십자군은 기독교도들이 자신들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지배하기 위해 시작한 원정이었지만, 실제로는 문화 수준이 낮았던 나라들이 무력을 통해 이슬람제국을 공격하여 재화와 미술품을 수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슬람제국에 쳐들어가서 적을 꼬치처럼 꿰어 죽이는 등 잔혹한 짓을 저지르고 금은보화를 수탈하여 자국에 돌아왔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이미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이라는 단어는 서양에서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터키 등에서는 ‘라틴의 침략’으로 일컬어집니다.”(Sakakibara, 2007: 96).; 리처드 플레처(Richard Fletcher)도 비슷한 지적을 한다. “이슬람권 기록에서 십자군은 언제나 프란지(Franjii) 즉, ‘프랑크인들’이다. 그들의 출신지가 시칠리아든 헝가리든 스코틀랜드든 마찬가지다. 이 침입자들이 뭔가 특별하고 독특한 전쟁 행위에 연루되었음을 암시하는 그 어떤 아랍어 용어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십자군에 대한 무관심은 중세 이슬람 세계가 그리스도교 세계의 문화 전반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요소다.”(Fletcher, 2020: 144).

는데, 특히 루터는 기독교 세계에서 터키인들보다 더 없이 흉악한 존재다'라고 1523년 로마의 교황 대사는 썼다.”(Jacoby, 2012: 53)

2) 레반트로 무대를 옮기고 판만 키운 그저 잔혹한 전쟁⁵⁴⁾

아민 말루프(Amin Maalouf)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한다. 당시 레반트 지역의 거주민들에게 있어서 사실상(de facto) 종교와 민족적 귀속감 사이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지만 안티오케이아에 사는 동방의 그리스도교도들-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마론 교도, 야콥파-은 프랑크인들이 들어 닥칠 무렵에 이중의 압박을 받고 있었다. 같은 종교를 믿는 서양인들은 이들이 사라센인들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비열한 무리로 취급하였고 동향의 무슬림들은 이들이 침략자들과 내통하고 있다면서 내쳤다. 따지고 보면 종교와 민족적인 귀속감 사이의 경계는 실제 생활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롬이라는 호칭조차 스스로를 언제나 바실레이오스의 백성들로 여기면서 그리스적인 의식을 받아들인 비잔티움인들과 시리아인들 모두를 지칭하였다.”(Maalouf, 2002: 46)

십자군 전쟁이라는 전쟁에서 종교적 색채를 지닌 단어를 모두 삭제하고 생각해 보면 과거에 발생한 평범한 그저 잔혹한 전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십자군 전쟁이라고 행해진 무력 투쟁에서 십자군이라는 이름을 생략하고 십자군의 이름으로 행해진 전쟁의 기록을 보라. 거기서 이슬람(무슬림)과 그들의 절대자 알라(그의 사도 무함마드를)라는 이름을 생략해 보라. 또 기독교(또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라는 이름을 빼고 군인들에게 출전한 지역의 이름과 지명을 붙여보라. '다마스쿠스에서 온 누구'와 '프랑스에서 온 누구'라는 식으로 말이다. 또 거기에 전장이 레반트 지역이 아닌 유럽의 어느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라고 생각해 보라. 십자군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도 그저 평범한 전쟁의 하나에 불과하지 않는가? 그저 인간이기를 스스로 부인한 잔혹한 전쟁 말이다.[아이러니 한 것은 잔혹 그 자체도 당시 전쟁의 일반적인 관행(慣行)에 불과했다는 점이다⁵⁵⁾] 역사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그런 미개한 전쟁 말이다. 다른 전쟁과 별반 차이가 없을 뿐이다. 실질적으로 전쟁 그 자체는 잔혹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누가 누가보다 더 잘했다고 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 오십보백보라는 말처럼. 그런데 그 잔혹한 전쟁이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는 그냥 그것이 모두가 목인하는 평범한 하나의 관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복과 더 큰 보복, 잔혹함과 더 큰 잔혹함의 연속이었다는 것이다. 예루살렘의 대학살(기독교가 주도한)이 있었던 것처럼, 메르

54)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기술에 대한 에우젠 키로비치(Eugen Chirovic)의 다음에 대한 기술도 참고하라. “그리스도교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탈환한 살라딘은 약간이 몸값을 받고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병사들을 풀어주었다. 개종을 거부하고 처형된 포로는 수도사인 기사들뿐이었다. 국가 간의 갈등으로 인한 인명손실에 대해 말하자면, 당시에는 요즘처럼 허구와 사실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사상자의 수를 크게 부풀리는 경향이 있었다.”(Chirovic, 2017: 106).

55) “전쟁포로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도 당시의 관행이었을 뿐 특별한 게 없다. 정적이나 반란의 주도자들의 눈을 뽑는 것은 비잔티움도 즐겨 사용한 형벌이었다. 그것이 말뚝에 찌르는 것보다 한층 불쾌감이 덜해서였다.(Herrin, 2010: 437).

지분의 학살(이슬람이 주도한)도 있었다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 그 자체가 천하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 사상자들의 수와 규모가 따지면서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참고로 말루프의 책에서 볼 수 있는 아르메니아 도시 에데사(Edessa)와 아데사의 백작이라고 부르는 보두앵 1세(Boudouin I)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라. 그 사건에 종교가 들어 있는가? 권모술수(權謀術數)로 인한 비인간만이 존재할 뿐이지 않는가? 개가 개를 먹는 세상(dog-eat-dog world), 아니 인간이 인간을 먹는 세상(man-eat-man world)만이 존재할 뿐이다.(이선경, 2018: 32)

[1098년] 사실 이 아르메니아 도시[에데사. Edessa]의 상황도 심각했다. 도시를 겨우 빠져나온 많지 않은 무슬림들이 전해준 소식은 이랬다. 2월에 보두앵[Boudouin 1세, 에데사의 백작 예루살렘 왕국의 왕]이라는 부르는 프랑크 군대 대장이 수백 명의 기병들과 2천 명이 넘는 보병들을 이끌고 도시로 들어왔다. 사실 이들은 부른 사람은 이 도시의 통치자인 아르메니아의 늙은 왕자 토로스였다. 그는 반복되는 투르크 전사들의 공격으로부터 도시를 지키기 위해 프랑크인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었다. 그러나 보두앵은 단순히 용병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토로스의 공식 후계자로 지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로하였으나 후사가 없었던 토로스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아르메니아 관습에 따라 성대한 후계자 입양 의식이 거행되었다. 토로스는 폭이 넓은 흰색 의상을 차려 입었다. 상반신을 벗은 보두앵은 아버지의 가슴에 안기기 위해 ‘아버지’의 옷자락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이윽고 ‘어머니’ 그러니까 토로스의 아내 차례가 되었다. 보두앵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으며 어머니의 옷 속으로 안기기 위해 다가왔다. 전통적으로 어린아이를 입양할 때 치르는 의식에서 ‘아들’이 장성한 털복숭이 기사로 바뀌었으나 참관인들도 흥미롭다는 듯 속닥거렸다. 그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그 의식 장면을 상상한 무슬림 병사들은 배꼽이 빠지도록 웃어젖혔다. 그러나 이어지는 이야기는 소름이 끼치는 것이었다. 그 의식이 있고 며칠 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태연자약하게 선동한 군중에 의해 몰매를 맞고 죽임을 당했다. 이윽고 보두앵은 스스로를 에데사의 ‘백작’이라 칭하고 프랑크족 동료들을 군대와 행정부의 요직에 앉혔다.(Maalouf, 2002: 59-60)

전쟁 무대를 단지 레반트(Levant)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중세 유럽의 영지 확장의 역사를 단지 레반트지역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촬영 장소의 이동과 현지 캐스팅(casting)을 통한 새로운 현지 출신의 주인공과 조연급 인물들의 등장에도 불과하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아니 두 개 있던 세트장을 한 곳으로 옮긴 후 하나로 통합하는 불과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레반트 지역에서도 영지 확장을 위한 무력행사가 꾸준히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무대에서는 영원한 의리를 보기 어렵다. 종교는 단지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 신의 이름을 얘기하지만 폭력 속에서 신의 정신은 사라지고 약육강식이라는 원초적 힘의 논리에 의해서 생활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을 뿐이다. 단순히 자신만의 왕좌를 위해(For my thrones) 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에 불과할 뿐이다. “교황들은 이슬람만이 아니라 비잔티움 교회와도 대치했고,

가톨릭 귀족 및 왕들과 팽팽히 맞서고 분쟁하는 상황에서 십자군 원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제국을 확대할 길을 모색했다. … 십자군은 원정 경로를 따라 ‘라틴 왕국들’을 건설했으며, 그중에는 1099년 예루살렘에 세운 왕국과 1204년 콘스탄티노플에 세운 왕국이 있었다.”(Burbank and Cooper, 2016: 140-141)

3) 지금에 와서 누구의 책임이 먼저냐는 것은 난설(難說, [絕對無意味])

송경근 교수는 자신의 논문의 제목을 “중세 유럽의 십자군 전쟁은 원정인가 침략인가?”(원정이 아니라, 원군[援軍]이냐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왜냐하면 먼 곳에 대한 침략이 원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가까운 지역의] 침략(侵掠)인가 [먼 지역의 침략인] 원정(遠征)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두 다 침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역사에서 침략이냐 원군이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느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다. 오늘날처럼 상대적 진리가 판치는 현실에서는 목소리 큰 놈 아니면 돈 많은 놈이나 다수결에 의해서도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단순히 제1차 십자군 전쟁만을 봤을 때에는 황제의 요청 자체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원군일 것이고, 십자군들이 거기에 라틴국가들을 세운 것만을 생각하면 서유럽의 침략[또는 원정]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W. B. 바틀릿은 이슬람의 등장과 팽창에 대해서 매우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만약 이슬람의 등장과 팽창을 중심으로 본다면 어떨까? 십자군 전쟁은 원군에 더 가깝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이슬람과 비잔틴의 접촉은 이슬람의 정복 전쟁(푸투흐 futuh)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Küng, 2013: 329-333 참조). 시리아와 이집트를 빼앗긴 비잔틴 제국의 영토는 동부의 절반 정도인 아나톨리아,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 축소되었다.

[무슬림의 예를 따라 알라의 예언자] 무함마드와 그의 후계자들의 등장은 그야말로 혜성 과도 같았다. 선지자 무함마드가 몸소 아라비아 반도의 많은 부분을 지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보였을 테지만 이러한 성공은 그 뒤에 이어질 성공과 비교하면 오히려 무색해지고 만다. 자신들이 거둔 성공에 고무되어,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영향권을 확장하려고 노력하여 중동의 중요한 세력이었던 페르시아인들을 바레인에서 몰아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슬람으로 알려진 새로운 종교의 신자들이 팔레스타인에 소규모로 공습을 가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커져 동쪽 지중해 연안에 이던 도시 가자가 함락되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비잔틴 제국의 일부였다. 따라서 참신하고 의기양양한 이슬람 세력과 비잔틴인들 사이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636년 8월 20일 비잔틴 군대는 야무르크 강둑에서 패주했는데, 이 패배는 그야말로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는 이슬람의 증대되는 힘을 뜻했고 동시에 현존하는 세력의 균형에 거대한 위협을 의미했다. 그러다가 638년에는 예루살렘마저 함락되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이집트가 침략당했다. 8세기 끝날 무렵엔 북아프리카가 이슬람의 세력권에 들어갔고, 곧이어 에스파냐도 넘어갔다. 이슬람의 전진은 프랑스로 계속되었고, 푸아티에에 이르러서야 겨우 멈추었다. 그러나 서유럽인들이 푸아티에에서 거둔 승리조차 광활한 이슬람 제국을 심각하게 위협하지는 못했다. 이슬람 제국은 에스파냐에서 향후 300년 동안이나 굳건하게 자리 잡았다. 그 창시자의 죽음 이후 100년이 채 안 되어, 이 새로운 종교

의 영토는 서쪽의 대서양 연안에서부터 인도까지 뻗어나갔다. 이슬람 군대의 포위공격에 대한 경험부족이 한동안 결정적인 것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심지어 콘스탄티노플조차 그들로부터 공격받았다.(Bartlett, 2004: 61-62; Burbank and Cooper, 2016: 118 참조)⁵⁶⁾

만약에 이안 아몬드(Ian Almond)가 적고 있는 다음의 내용만을 보면 어떤가? “무슬림과 기독교도 간의 동맹을 소개하기 위해 쓴 책에서 무슬림이 이베리아 반도에 최초로 침입하게 된 계기가 기독교도의 요청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려니 아이러니하다. 이베리아 반도에 이미 3백 년 전부터 게르만족의 일파 서고트(Visigoth)족이 다마스쿠스(Damascus), 칼리프 조(우마이야 Umayyad 왕조)의 북아프리카 대리자들에게 자신의 속적을 물리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결과가 이후 8백 년 동안 지속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711년 우마이야 왕조는 타리크 이븐 자이드(Tariq ibn Zayd)라는 장군에게 에스파냐 남부 원정대를 이끌고 오늘날 그의 이름이 남아있는 해협(지브-랄-타 Gibr-al-Tar) 너머로 가도록 했다. 무슬림 군대는 20년 안에 프랑스 북서부 지역까지 이르게 되며 유럽 북부를 향한 거침없는 전진은 732년 푸아티에(Poitiers) 전투에서 간신히 저지되었다.”(Almond, 2010: 30-31). 만약 다음 내용을 접하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물론 이는 십자군 전쟁 이후의 일이지만 말이다). “압둘하미드 1세(1774-1789)와 그의 계승자 셸림 3세(1789-1807)와 마흐무드 2세(1808-1839)의 통치기간 중 오스만 동전에는 이미 콘스탄티노플이 아니라 이스탄불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Padgen, 2009: 698. 374번 주석; Finkel, 2006: 383)⁵⁷⁾

III 나가는 말

1 요약 및 제안

십자군 전쟁의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대부분의 전쟁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십자군 전쟁은 다양한 원인들이 의해 태동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종교적 요인만으로 십자군 전쟁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굳이 그 사건이 가지는 비중을 중심으로 십자군 전쟁의 원인에 순위를 먹인다면 피터 프랭코판의 지적처럼 비잔틴 황제인 알렉시오스 콤네노스의 정치적 욕망을 제일 앞에 위치시켜야 할 것이다. 11세기에는 아랍 중심(칼리프, 또는 할리파 Khalifa)의 동질성이 무너지고 없었다. 이방인에 불과한 투르크족 용병들이 실질적으로 레반트 지역을 지배했으며 초기에 이들은 하나의 통일체를 갖지 못한 채 갈등과 분열로 혼재된 상황이었다. 그러한 레반트 지역의 정세를 인지

56) 게오르크 오스트로고르스키(Georg Ostrogorsky)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비잔티움 제국이 페르시아에 승리를 거두기 시작한 해는 아랍인들의 헤지라(hejira)와 일치한다. 헤라클레이오스가 페르시아 제국에 승리한 시기에 무함마드(마호메트)는 아랍인들의 종교적, 정치적 통일에 초석을 놓았다. ... 페르시아는 아랍인들의 첫 번째 돌격에서 몰락했고, 비잔티움은 예언자가 죽은 지 정확히 10년 후에 동쪽 속주[屬州]들을 상실했다. 두 제국은 서로간의 막무가내 식 전쟁으로 함께 약화되었고 이로써 아랍인들의 정복에 탄탄대로를 내주었다.”(Ostrogorsky, 1999: 81).

57) Finkel, Caroline (2006). *Osman's Dream: The Story of Ottoman Empire, 1300-1923*. New York: basic Books.

한 비잔틴 황제는 알렉시오스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의 무력을 빌려서라고 잃어버린 과거 비잔틴 영토[榮光]를 되찾고 싶었던 욕구가 십자군 전쟁의 도화선(導火線, fuse)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서미석, in Bartlett, 2004: 515-516)

그렇다면 오늘날 십자군 전쟁을 이슬람과 기독교 양(兩)종교 간의 극단적 대립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십자군 전쟁의 원인이 다양성을 지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더 나아가 도화선의 역할을 한 것이 레반트의 복잡한 정세에서 비잔틴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비잔틴 황제 알렉시오스 콤네노스가 꾸며낸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십자군 전쟁을 이해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오늘날 십자군 전쟁을 양 종교 간의 극단적 무력 투쟁으로 이해하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a) 먼저 종교적 요인은 십자군 전쟁의 극히 작은 일부이며 단지 수사에 불과할 뿐이며, (b) 심하게 말해 무대만 레반트 지역으로 옮긴 잔혹한 평범한 전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며(전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잔악[殘惡]함의 동의어인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서는 (c) 전쟁의 책임에 대해서 누가 먼저냐는 것을 묻는 것은 미안하지만 난설(難說)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십자군 전쟁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과거 십자군 전쟁은 단지 그저 평범한 역사에서 그저 볼 수 있는 전쟁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교의 정치화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이들에 의해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누가에게 이익인가?(쿠이 보노, CUI BONO)라고 되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종교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전쟁임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가지는 다양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극적으로 다양성을 침해하면서 극단적으로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욕구들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극단적으로 환원적인 성격을 지닌 단어들의 사용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아민 말루프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 ‘십자군=기독교(프랑크[Franj]=그리스도인[基督教])’라는 도식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Maalouf, 2002: 11 참조; 앞에서 언급한 Ansary, 2011: 247 참조). 왜냐하면 참가자들이 매우 다양했기 때문이다. 십자군에 무슬림들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⁵⁸⁾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말이다. 물론 ‘이슬람=아랍족’이라는 도식도 벗어나야 할 것이다. 실제로, 살라딘은 쿠르드족이었고, 오스만제국은 투르크족이 중심이 된 것으로 아랍인과는 거리가 멀다. 이란도 페르시아[이란] 족이기 때문이다. 말루프가 지적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9세기에 들어서면서 예언자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잃었다. 실제로 그들을 통치했던 지배자들은 하나같이 이방인들이었다. 2세기에 걸친 프랑크인들의 점령 기간을 통틀어 연이어 등장한 그 많은 통치자들 중에 진짜 아랍 사람이 누가 있던가? 연대기 저자들, 카디들, 소국의 왕들-이븐 암마르, 이븐

58) 예를 들면 제6차 십자군 원정에는 프리드리히의 시칠리아 섭의 무슬림 병사들도 십자군에 포함되어 있었다.(Almond, 2010: 103)

무키드 등-그리고 무능한 칼리프들을 보라. 앞장서서 프랑크인들과 싸웠던 실권자들-장기, 누르 알 딘, 쿠투즈, 바이바르스, 칼라운-은 투르크족이었다. 알 아흐달은 아르메니아 출신이었고, 시르쿠, 살라딘, 알 아딜, 알 카밀은 쿠르드족이었다. 물론 이들이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랍에 동화된 인물들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1134년에 술탄 만수드[Masud, Sultan]가 칼리프 알 무스타르시드와 회담할 때 통역관을 대동해야 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그 일족이 80여 년이나 다스렸지만 셀주크 왕은 아랍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던 것이다.”(Maalouf, 2002: 362). 물론 이안 아몬드의 책에서와 같이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협력과 평화로운 시기에 관한 역사적 사례들에 대해서도 자주 얘기되어야만 할 것이다. 의도적이더라도 양 종교간의 평화가 강조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발생한 갈등의 근저(根底)에는 본질적으로 종교가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언급되어야만 할 것이다. 전쟁은 본질적으로 종교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다.

2 아주 위험한 생각

일부에게 종교가 매우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억압받는 이들에게 종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힘 약한 피지배층에게는 더욱 더 그랬을 것이다. 아주 위험한 생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본다. 만약에 일제강점기 때에 이 나라를 점령한 일본인이 이 나라 사람들을 더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말의 생식기로 만든 회초리로 동물 같은 취급을 하지 않고 매우 인간적으로 대접해줬다면, 아니 조선시대 양반들이 했던 것과 비교해서 그 보다 약간 더 인간적인 대우를 해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조선의 두 왕자, 선조의 두 아들 장남 임해군과 5남 화순군이 함경도 회령에서 일본군 장수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에게 포로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이 매우 충격적인 것은 이들 왕자들이 포로가 된 것은 그 지역의 조선인들이 두 왕자를 손수 왜국의 적장(敵將)에게 인도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용사일록(龍蛇日錄)』, 『재조변방지(再朝藩邦志)』 등에 의하면 임해군과 화순군이 함경도로 들어가 머무는 동안 수령들을 핍박하고 백성들을 침학(侵虐)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정확한 정보인지 몰라도 개인적인 읽은 기억에 의하면 전쟁 중 왕자들이 농민들의 소를 잡아먹고, 남편 있는 여인과의 오입질로 인한 백성들의 분노로 인해 그러한 일이 발생했었다는 것 같다) 억압받는 자들에게는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민족주의자들에게는 미안한 소리이지만 말이다. 지배자라고 불리는 자가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가 누구냐는 두 번째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일제강점기 때에 엄격한 신분사회가 있었던 이 조선에 일본인이 그러한 것들을 없애고, 힘들게 사는 이들의 편에 섰다면,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들을 돌봐줬다면

아마도 저항과 독립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을 것이다. 이씨(李氏) 조선[朝鮮王朝]이 지배하는 것이나, 일제 총독부가 지배하는 것이나 피지배자의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지배층의 입장에서는 누가 지배하느냐 보다는 누가 그들 자신에게 더 관대하고 인간적으로 대접해주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59)·60)} 물론 기득권 세력들은 왕족과 그 관료 출신들 등은 과거의 기득권을 찾기 위해서 독립하기를 원했을 것이다. 십자군 전쟁 당시 레반트 지역 주민들도 자신들의 지배자가 누구여야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지배자의 종교가 무엇이냐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지배자들은 바뀌었으며 단지 그들에게 더 관대한 정책을 펼치는가가 더 중요하였을 것이다. 가벼운 세금과 균역 말이다. 과거처럼 국산품 이용, 즉 물산장려 운동이 오늘날에는 호소력이 있을까? 과거처럼 다국적 기업, 아니 초국적기업, 국내기업의 구분이 중요치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사실 국내 기업이라고 하지만 단지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에 무슨 국적이 있겠는가? 자본은 단지 소유주만 있는 것 아닌가! 다만 취업 희망자[就·準·生]들이 바라는 것은 기업의 국적이 아닌 얼마만큼의 생계를 위한 충분한 월급과 복지 혜택을 자신들에게 주느냐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이다. 관대하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열릴 것이다. 그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회가 된지 오래 되었을 뿐이다.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받아들여라! 현실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상우 (2018). “다양한 가룟 유다의 탄생”. 기독교학문학회. (통권37호).
- 강상우 (2011). “수용거부변혁과정-필터로서의 기독교세계관: A.R.T.과정”. 춘계학술대회.
- 김능우 (2016). 『(중세 아랍시로 본) 이슬람 진영의 대(對)십자군 전쟁』.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문화원.
- 김대식 (2019). 『그들은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되었는가』. 파주: 21세기북스.
- 김윤성 (2009). “9.11이 종교 전쟁의 결과라고요? 아닙니다.” 신재식·김윤성·장대익 공저. 『종교전쟁: 종교에 미래는 있는가?』. 사이언스북스. 297-337.
- 김차규 (2009). “비잔티움 세계와 서유럽: 시각의 차이”. 한국서양사학회 엮음 (2009). 『유럽중심의 세계사를 넘어 세계사들로』. 서울: 푸른역사. 136-165.

59) 백종국 교수도 이와 비슷한 지적을 하였다. “구한말에 있어서 민중은 노예와 같은 상황이었고 양반계층으로 대변되는 지배계층의 착취와 약탈은 조선의 자주권에 대한 관심을 흐르게 만들었다. 조선왕조라는 약탈자가 일본왕조라는 약탈자로 바뀐다 해서 피지배자에게는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다.”(백종국, 2019: 47).

60) 선생님이셨던 나의 큰 외숙도 6·25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셨다고 한다. [좌익성향을 지닌] 제자가 그 사실을 알려줘서 화장실(廁間)에 몸을 숨겨서 난을 피하셨다고 한다. “누구에게나 선대하라. 이념도 초월할 수 있다.” 큰 외숙의 경험과 가르침을 개인적으로 믿고 싶다.; LA폭동때 흑인들이 직접 나서서 보초를 서면서까지 지켰던 한인 상점 주인인 홍정복 씨에 대한 이야기를 참조하라. 선대의 결과다. 이유지, “[똑똑, 누구세요?] LA폭동 당시 흑인들이 지켰던 한국인 ‘마마’를 아시나요” <한국일보> (2020.06.13); “살라딘은 한 번이라도 빵과 소금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면 결코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보면 다음 세기의 작가 단테(Dante Alighieri, 1265-1321)가 살라딘을 림보(Limbo)에 있는 고결한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러니까 호메로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위치시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Fletcher, 2020: 152-153).

- 남종국 (2018). “중세 해상 제국 베네치아: 신화인가, 실체인가?”. 김능우·김수연 외 10인 공저 (2018). 『제국, 문명의 거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11-350.
- 박승억 (2015). 『학문의 진화』. 파주: 글항아리.
- 박찬승 (2017). 『중세의 재발견: 현대를 비추어 보는 사상과 문화의 거울』. 서울: 길
- 백종국 (2019). “3.1운동의 정치적 의미와 과제”. 『3.1운동 100주년과 기독교』. 2019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45-57.
- 송경근 (2009). “중세 유럽의 십자군 전쟁은 원정인가 침략인가”. 한국서양사학회 엮음 (2009). 『유럽중심의 세계사를 넘어 세계사들로』. 서울: 푸른역사. 166-193
- 성백용 (2019). “십자군 시대 서유럽의 이슬람세계에 대한 인식과 담론의 유형들”. 김응종 외 공저 (2019). 『전쟁과 문명』. 1판2쇄. 대전: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40-63.
- 유희수 (2018). 『낮선 중세』. 서울: 문학과지성사.
- 이광수 (2017). 『인도에서 온 허왕후, 그 만들어진 신화』. 서울: 푸른역사.
- 이선경 (2018). 『(21세기에 새로 쓴) 인간불평등사』. 서울: 프리스마.
- 진원숙 (2006). 『십자군, 성전과 약탈의 역사』. 파주: 살림.
- 차용구 (2004). 『로마 제국 사라지고 마르탱 게르 귀향하다』. 서울: 푸른역사. “7. 엘 시드: 기독교와 이슬람 넘나든 에스파냐의 영웅 혹은 ‘용병’”. 169-192.
- 최덕성 (2003). 『종교개혁전야: 십자군전쟁에서 르네상스까지』. 서울: 본문과현장사이.
- 최성권 (2012). 『중동의 재조명: 역사』. 파주: 한울.
- 彌永信美 (2005). 『幻想の東洋: オリエンタリズムの系譜』. 김승철 역 (2019). 『환상의 동양: 오리엔탈리즘의 계보』. 서울: 동연.
- Almond, Iran (2009). *Islam, the People and the State: Political Ideas and Movement in the Middles East*. I. B. Tauris & Co. 최파일 역 (2010). 『십자가 초승달 동맹』. 미지북스.
- Anderson, Benedict (2006).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ised edition. London: Verso. 서지원 역 (2018). 『상상된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 서울: 길.
- Ansary, Tamim (2009). *Destiny Disrupted*. PublicAffairs. 류한원 역 (2011). 『이슬람의 눈으로 본 세계사』. 서울: 뿌리와이파리.
- Bartlett, W. B. (1999). *God Wills It!* Sutton Publishing. 서미석 역 (2004). 『십자군 전쟁: 그것은 신의 뜻이었다』. 제1판 제2쇄. 파주: (주)한길사.
- Beckert, Sven (2014). *The Empire of Cotton*. Alfred A. Knopf. 김지혜 역 (2018). 『면화의 제국: 자본주의의 새로운 역사』. 서울: (주)휴머니스트.
- Burbank, Jane and Frederick Cooper (2010). *Empires in World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이재만 역 (2016). 『세계제국사: 고대 로마에서 G2시대까지 제국은 어떻게 세계를 상상해왔는가』. 서울: 책과함께. 특히 Chapter 3. 로마 이후: 제국, 기독교 이슬람. 100-146.
- Carroll, James (2011). *Jerusalem, Jerusalem: How The Ancient City Ignited Our Modern World*. Houghton Mifflin Harcourt. 박경선 역 (2014). 『예루살렘 광기』. 파주: 동녘.
- Chirovic, Eugen (2014). *Gods, Weapons and Money*. 김은영 역 (2017). 『신, 무기, 돈: 무엇이 권력을 만드는가』. 서울: 더난출판.
- Crowley, Roger (2011). *City of Fortune: How Venice Won and Lost a Naval Empire*. London. 우태영 역 (2012). 『부의 도시, 베네치아』. 서울: 다른세상.
- Fletcher, Richard (2004). *The Cross and The Crescent: The Dramatic Story of the Earliest*

- Encounters between Christians and Muslims*. London: Penguin Books. 박흥식·구자섭 공역 (2020). 『십자가와 초승달, 천년의 공존』. 파주: 21세기북스.
- Frankopan, Peter (2012). *The First Crusade: The Call From The East*. Vintage. 이종인 역 (2018). 『동방의 부름: 십자군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서울: 책과함께.
- Frankopan, Peter (2015). *The Silk Roads*. Bloomsbury. 이재황 역 (2017). 『실크로드 세계사: 고대 제국에서 G2 시대까지』. 서울: 책과함께.
- Goldstone, Jack (2007). *Why Europe? The rise of the West in World history 1500-1850*. McGraw-Hill. 조지형·김서형 공역 (2011). 『왜 유럽인가』. 파주: 서해문집.
- Haskins, Charles H. (1927). *The Renaissance of the Twelfth Century*. Cambridge, MA. 이희만 역 (2017). 『12세기 르네상스』. 서울: 해안.
- Hengel, Martin (1988). *Judentum und Hellenismus*. Tübingen: Mohr Siebeck. 박정수 역 (2012). 『유대교와 헬레니즘 (1): 기원전 2세기 중반까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의 헬레니즘의 만남 연구』. 파주: (주)나남.
- Herrin, Judith (2007). *Byzantium: The surprising life of a medieval empire*. Penguin Books. 이순호 역 (2010). 『비잔티움: 어느 중세 제국의 경이로운 이야기』. 파주: (주)글항아리.
- Horton, Michael S. (2002). *Where in the World Is the Church?*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apny. 윤석인 역 (2019).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 부흥과개혁사.
- Howard, Michael (2009). *War in European History*. 안두환 역 (2015). 『유럽사 속의 전쟁』. 파주: (주)글항아리.
- Inoue, Koichi (2008). *Ikinokotta Teikpku Byzantine*. Kodansha. 이경덕 역 (2010). 『살아남은 로마, 비잔틴제국』. 서울: 다른세상.
- Jacoby, Russell (2011). *Bloodlust: On the Roots violence from Cain and Abel to the present*. Armonk, NY. 김상우 역 (2012). 『친밀한 살인자: 이웃 살인의 역사로 본 폭력의 뿌리』. 파주: 동녘.
- Kast, Bas (2018). *Der Ernährungskompass: Das Fazit aller wissenschaftlichen Studien zum Thema Ernährung*. München: C. Betelsmann. 유영미 역 (2019). 『내 몸에 이로운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군살, 노화, 성인병으로부터 멀어지는 영리한 식사법』. 고양: 갈매나무.
- Kikuchi, Yoshio (2003). *Shinsei Roma Teikoku*. Kodansha. 이경덕 역 (2013). 『신성로마제국: 결코 사라지지 않는 로마』. 3쇄. 서울: 다른세상.
- Küng, Hans (2006). *Der Islam: Geschichte, Gegenwart, Zukunft*. München: Piper Verlag. 손성현 역 (2013). 『한스 쿵의 이슬람: 역사·현재·미래』. 초판2쇄. 서울: 시와진실.
- Maalouf, Amin (1983). *Les Croisades vues pas les Arabes*. Editions Jean-Claude Lattes. 김미선 역 (2002).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 서울: 아침이슬.
- Madden, Thomas F. (2005). *The New Concise History of the Crusades*. Lanham, Maryland: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권영주 역 (2010). 『십자군: 기사와 영웅들의 장대한 로망스』. 서울: 루비박스.
- Marks, Jonathan (2017). *Is Science Racist?* Cambridge. Polity. 고현석 역 (2017). 『인종주의에 물든 과학』. 서울: 이음.
- Maza, Sarah (2017). *Thinking About Hist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박원용 역 (2019). 『역사에 대해 생각하기: 오늘날 역사학에 던지는 질문들』. 서울: 책과함께.
- Montefiore, Simon Sebag (2011). *Jerusalem: The Biography*. London: Capel & Land Ltd. 유달승 역 (2012). 『예루살렘 전기: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 땅의 역사』. 시공사.
- Norwich, John Julius (1995). *Byzantium: The Decline and Fall*. 남경태 역 (2008). 『비잔티움 연대기

- 5: 십자군의 시대』 . 서울: 바다출판사.
- Norwich, John Julius (1991). *Byzantium: The Apogee*. 남경태 역 (2007). 『비잔티움 연대기 4: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한다』 . 서울: 바다출판사.
- Ostrogorsky, George (1996). *Byzantinische Geschichte 234-1453*. München. 한정숙·김경연 공역 (1999). 『비잔티움 제국사 324-1453』 . 서울: 까치글방.
- Padgen, Anthony (2008). *Worlds At War*. 추미란 역 (2009). 『전쟁하는 세상』 . 파주: 살림.
- Pelikan, Jaroslav (1999). *Jesus Through the Centuries: His Place in the History of Culture*. Yale University Press. 민경찬·손승우 공역 (2019). 『예수, 역사와 만나다: 인류가 역사 속에서 이해하고 표현한 예수의 모습들』 . 서울: 비아.
- Pelz, William A. (2016). *A People's History of Modern Europe*. London: Pluto Press. 장석준 역 (2018). 『유럽민중사: 중세의 붕괴부터 현대까지, 보통사람들이 만든 600년의 거대한 변화』 . 파주: 서해문집.
- Ruelland, Jacques G. (1993). *Histoire de la Guerre Sainte*. Presse Universitaires de France. 김연실 역 (2003). 『성전, 문명충돌의 역사: 종교갈등의 오랜 기원을 찾아서』 . 파주: 한길사.
- Sacks, Jonathan (2003). *Dignity of Difference*. 임재서 역 (2007). 『차이의 존중: 문명의 충돌을 넘어 서』 . 서울: 말글빛냄.
- Said, Edward W. (1978). *Orientalism*. 박홍규 (2012). 『오리엔탈리즘』 . 개정증보판 6쇄. 서울: (주)교보문고.
- Sakakibara, Eisuke (2006). *Shoku Ga Wakareba Sekai Keizai Ga Wakaru*. Bungel Shunju, 유주현 (2007). 『식탁 밑의 경제학』 . 파주: 이콘출판(주)
- Tate, Georges (1991). *L'Orient des Croisades*. Paris. Gillimard Jeunesse. 안정미 역 (1999). 『십자군 전쟁: 성전탈환의 시나리오』 . 초판2쇄. 서울: (주)시공사.
- Treadgold, Warren (n.d). *A Concise History of Byzantium*. 박광순 역 (2003). 『비잔틴 제국의 역사』 . 서울: 가람기획.
- Trevathan, Wenda (2010). *Ancient Bodies, Modern Lives: How Evolution has Shaped Women's Health*. Oxford University Press. 박한선 역 (2017). 『여성의 진화: 몸, 생애사 그리고 건강』 . 서울: 에이도스.
- Turchin, Peter (2016). *Ultrasociety: How 1,000 Years of War Made Humans The Greatest Cooperators on Earth*. 이경남 역 (2018). 『초협력사회: 전쟁은 어떻게 협력과 평등을 가능하게 했는가』 . 파주: 생각의힘.
- Whitman, James Q. (2017). *Hitler's American Model: The United States and the making of Nazi Race Law*.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노시내 역 (2018). 『히틀러의 모델, 미국: 미국의 인종법은 어떻게 나치에 영향을 미쳤는가』 . 서울: 마티.
- Wright, Jennifer (2017). *Get Well Soon: History's Worst Plagues and the Heroes Who Fought Them*. DeFiore and Company Literary Management. 이규원 역 (2020).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 서울: 산처럼. “안토니누스역병”. 15-37.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십자군 전쟁에 대한 재고 - 제1차 십자군전쟁의 원인 중심으로 -	발표자	강상우
		논찬자 (소속)	석종준 (침례신학대학교)

저자의 논문 주제는 “제1차 십자군 전쟁의 원인에 대한 재고”이다. 저자가 십자군 전쟁의 원인에 대해 재고찰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십자군 전쟁에 대한 이해를 서유럽 중심 뿐만 아니라 비잔틴[동로마] 제국과 이슬람의 시각에서도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나간 사건에 대한 역사는 단선적 인과관계(因果關係)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諸要因]들 간의 상관관계(相關關係)에 의해서 얽히고설켜서 나타난 결과물에 가깝기 때문이다. 셋째, 십자군 전쟁에 대한 역사적 이해도 여러 요인에 의한 복합적 결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저자는 십자군 전쟁과 원인과 관련해서 다음 4가지가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첫째, 비잔틴 황제의 정치적인 계산 때문이다(저자 특별히 주목). 둘째, 로마 교황의 당시 상황에서의 종교적인 계산 때문이다. 셋째, 레반트 지역에서의 이슬람의 세력 확장 때문이다. 넷째, 당시 사회와 일반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 밀레니엄 사상과 더불어 각 개인들의 다양한 참전 이유 때문이다.

저자는 십자군 전쟁의 원인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가 오늘날 십자군 전쟁의 연장으로서의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대립관계로만 환원하려는 역사 이해에 대해 왜 재고의 여지가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러한 환원주의적 이해가 오늘날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립의 관계에서처럼 상대방에게 단순히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한다거나, 단지 양(兩) 종교 간의 대립에서만 그 원인을 찾게 되는 것을 벗어날 수 있을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양 종교 간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필자가 생각하는 이 논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는 피터 프랭코판의 책, [동방의 부름: 십자군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접하고, 1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큰 동인은 “기존에 알려진 대로”(5면) 교황 우르반 2세의 신앙적 차원만이 아니라 비잔틴 황제 알렉시우스 콤풀레노스의 정치적 계산과 그 밖의 여러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의 도전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저자는 이러한 여러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전쟁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을 호전적 종교 광신자”로 결론 짓는 단순한 해석으로부터 우리를 구출시킬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7면). 둘째, 저자는 이 기대의 지평을 정당화하는 과정으로 1) 훗설의 이포케(일시적 판단 중지), 2) 자료들과 해석들의 사이의 필연적 상관관계성(영향사, 세계관 등) 강조, 3) 십자군 전쟁에 대한 4가지 원인으로서의 안내 등으로 전개하게 한다.

그리고 이 저자 논문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기 다양성이 주는 시사점”(29면)을 3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종교적 요인은 십자군 전쟁의 극히 작은 일부이며 단지 종교적 수사에 불과함”(30-31면), 둘째, 1차 십자군 전쟁은 “레반트 지역으로 무대를 옮기고 판만 키운 그저 잔혹한 전쟁”(31-33면), 셋째, “지금 와서 누구의 책임이 먼저냐는 것은 난설.” 저자는 결론은 1차 십자군 전쟁의 제일 큰 원인을 교황 우르반 2세의 신앙적 성전이 아니라, 비잔틴 황제 알렉시우스의 정치적 욕망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논문의 전개와 결론은 “십자군=기독교=그리스도인”이라는 도식에 대한 문제제기로서는 정당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저자의 입장은 이 기존의 도식이 도출된 명백한 또 한 축으로서의

동인, 즉 교황 우르반 2세의 복잡한 계기들에 의해 촉발된 성전으로서의 참전 촉구(선동)과 수많은 자들의 종교적(신앙적) 측면에서의 참전,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귀결된 원치 않은 전개와 불행한 결과들을 기독교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그에 타당한 반론으로까지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고 본다.

2021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 학술대회